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ONLINE WORSHIP SERVICE EXPERIENCE OF MZ GENERATION (MILLENNIAL AND Z) PASTOR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 감염병 시기 기독교대한감리회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Yongho Kim

May 2023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Yongho K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Heajung Park,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Andrew Dreitcer

May 2023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ONLINE WORSHIP SERVICE EXPERIENCE OF MZ GENERATION (MILLENNIAL AND Z) PASTOR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Yongho Kim

This project began with growing concerns about online worship servic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ut extended to examine what MZ generation Methodist pastors like me have experienced in the online worship service environment.

First, I add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with the recent trend of online worship service. In-depth interviews and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re essential in exploring the MZ generation pastors' ritual experiences at the worship service during COVID-19. Through the interviews, I have learned how pastors in the MZ generation, as digital natives, think about their online worship service experiences. The pastors have admitted to losing their community's interaction during the pandemic; they hope to return to the face-to-face worship format. Currently (3/4/2023), many Korean churches have returned to the on-site worship format, but we all know that we still live in the COVID-19 era, which means anytime we should return to the online worship format. One of the limitations of the digital worship service is the impossible of sharing the communion experience through the worship service. Through this project, I suggest a salt covenant worship solution for those who cannot practice communion at

the worship service time. Finally, I wish my project to contribute to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MZ generation pastors and the Methodist Church.

KEYWORDS: online worship service, worship paradigm, MZ generation pastors, qualitative research, digital sacrament.

국문 초록

코로나 감염병 시기 기독교대한감리회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by

Yongho Kim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나와 같은 MZ 세대 감리교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며 그들이 예배 환경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MZ 세대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코로나 시기 MZ 세대 목회자들의 예배 집례 경험을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온라인 예배 집례 경험과 디지털 네이티브 MZ 세대 목회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예배에 관해 알 수 있었으며, 주변인들의 관심의 결여를 도출할 수 있었다.

나는 인터뷰에서 MZ 세대 목회자들이 경험한 온라인 예배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와, 온라인 예배가 현장예배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3/4/2023) 한국교회들이 현장예배로 많이 돌아 갔지만, 언제 다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지 판단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와 성찬을 집례할 수 없는 MZ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디지털 대면 소금 언약 예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MZ 세대를 상호의존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감리교단에 MZ 세대 목회자를 향한 관심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온라인 예배, 예배 패러다임, MZ 세대 목회자, 질적연구, 디지털 성찬

SUMMARY

In Chapter 1, I elaborated on the importance of this project, its method, and its scope. In addition, while there is an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MZ generation, Korean Christianity, including the Methodist group, has paid attention only to the MZ generation in the church, not to the MZ generation pastors. Accordingly, my research questions include what the MZ generation pastors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online worship services populariz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apter 2, I employe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to determine how their experiences would affect online worship service and their worship theology. Through multiple approaches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online meetings, I got four critical topics: 1) online worship service experience; 2) online worship service of pastors of the MZ generation; 3) post-COVID online worship service awareness; and 4) the lack of interest. Based on this qualitative study result, I figured out how to make the appropriate environment for the online worship service by pastors of the MZ generation. Moreover, I realized the online paradigm that the MZ pastors experienced. They encountered a lack of interest in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ir church community and the Methodist Church.

In Chapter 3, I illustrated online worship service, diagnosed the lack of commonality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n church worship service and this new platform, and presented a digital face-to-face worship service to lead the innovative change in our worship service paradigm. I also described interdependent interest and communication at the denomination level when the MZ generation pastors experienced a radical change in online worship service.

Finally, in Chapter 4, I proposed several agendas as a conclusion of this project. First, I developed a Leiturgia worship theology to restore the faith community in worship service. MZ

generation pastors cannot hold sacraments because of the worship service format and their non-ordained status.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ed a digital face-to-face salt covenant worship service to overcome the inability to practice the sacramental service in the online worship service. Furthermore, I proposed a conference or seminar in the Methodist Church to fill the urgent need for online worship service theological discussions. An interdependent round table talk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voices of pastors of the MZ generation.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online worship service now asks us to develop a comprehensive theology of worship service to embrace the online format. I am convinced that digital face-to-face communion in the online worship service will contribute to (re)establishing the online worship service theology. It is common for the younger pastors in the Korean and Methodist churches to have difficulty expressing their opinions to the older pastors. However, I hope that interdependent conversations will change the future of the Korean and Methodist churches, calling MZ generation pastors for a world of mutual respect.

국문 요약

1 장에서 나는 본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MZ 세대 목회자들은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연구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MZ 세대에 관한 시대적인 이해와 관심이 있는 반면 기독교와 감리교단 안에서는 MZ 세대 성도들에 관한 관심이 있을 뿐, MZ 세대 목회자들에게는 관심이 적은 것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2 장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서 MZ 세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이 온라인 예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급변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MZ 세대의 목회자들의 예배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심층면담과 온라인 대면 방법인 Zoom 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 경험,' 'MZ 세대 목회자의 온라인 예배,'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 인식,' '관심의 결여'인 4 가지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는 온라인 예배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MZ 세대 목회자의 온라인 예배 활용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Z 세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온라인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라인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 부족과 감리교단으로부터 관심의 결여를 도출할 수 있었다.

3 장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관해 기술하고, 현 한국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공동체성 부족을 진단하였으며, 온라인 예배의 변화를 이끌 디지털 대면 예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MZ 세대 목회자들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교단 차원의 상호의존적 관심과 소통에 대해 기술하였다.

4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지에 대한 제안과 결론을 기술하였다. 먼저, 예배 안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레이투르기아로 예배 신학을 정립하였고, 앞으로 급진적 변화의 상황에서도 예배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MZ 세대 목회자들은 부교역자나 전도사로 성찬을 집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공동체성 회복과 레이투르기아 예배를 정립할 수 있는 디지털 대면 소금 언약 예배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리교단안에 온라인 예배로 인한 신학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컨퍼런스 혹은 세미나를 제안하며, MZ 세대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호의존적 원형 식탁을 제안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는 예배 전반적인 신학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는 온라인 예배 신학의 재정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교회와 감리교단 안에 나이가 적은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의견을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감리교단 안에 나이가 적은 목회자와 나이가 많은 목회자에게 상호의존적 경청이 일어나서, MZ 세대 목회자들이 관심 받고, MZ 세대 목회자들은 기성세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소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나는 충청도 G 군 H 마을에 있는 홍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29 세에 농촌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만 6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30 대 젊은 목사이다. 홍도교회에는 고령층 신앙인이 공동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전까지 10~20 대 신앙공동체와 예배를 드리다가 고령층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적응이 필요했다. 처음 홍도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긴장한 나머지 찬송가, 교독문, 성경을 찾고 함께 읽는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혼자 읽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홍도교회 목회를 3 년 정도 하며 읽는 속도와 예배순서에 적응하였고, 홍도교회 구성원 모두 나의 예배 집례에 적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밭일을 위해 몇일씩 외지로 나가거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신앙인의 특성상 평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같은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한 선배 목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였더니 '주일 한번의 예배로 충분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로 이루어진 홍도교회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예배에 관한 고민을 계속하였다.

2020 년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유행하였고 세계 보건 기구로부터 펜데믹이 선언되었다.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확산에 의해 거리두기 수칙으로 대면 예배에 인원 제한이 생겼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들과 감염자들로 인해, 대한민국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갑자기 일어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경험하게 했다. 이에 내가 속한 농촌 교회의 현실은 질병에 취약한 고령이기에 확산의 위험이 더 크게 다가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고, 와이파이 장비도 없는 고령층 신앙공동체에게 온라인 예배는 너무 어려웠다.[1] 어려운 상황은 농촌교회만 해당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헌금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았던 신앙공동체들은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임대교회 신앙공동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단에서 임대교회 신앙공동체 월세를 지원하기도 하였지만[2]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잠정 폐쇄하거나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했다.[3]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고령층에 속하여 나와 같은 소속 G 지방에 있는 고령층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고령층 신앙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본인도 고령층이라 온라인 예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의 변화로 기독교 각 교단내에서 활발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내가 속한 B 연회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내가 속한 감리교에서도 유튜브(Youtube)로 온라인 예배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내가 속한 홍도교회는 고령층 공동체로 회중의 온라인 예배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속에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나와 같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젊은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세미나의 자체는 유익했지만,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현실과, 고령층 회중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촌교회에 세미나 내용을 적용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1] 최승현, "[코로나 19,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2 노인들] 온라인 예배할 줄 알면 다행, 교제는 언감생심," *뉴스앤조이*, April 21, 2022,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3.

[2] 김철영, "교단들, 임대교회 월세 두 달 간 지원," *크리스찬투데이*, March 18, 2020, http://www.christiantoday.us/26396.

[3] 박재찬, "팬데믹 2 년, 개척교회 사역 중인가요?...3 곳중 2 곳은 답이 없었다," *국민일보*, May 04, 20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45037&code=61221111&sid1=i.

내용이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실내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세미나를 참석했지만, 세미나의 내용을 적용하기엔 장비, 인력, 상황 등이 내가 목회하는 홍도교회에 맞지 않고, 회중들도 참여할 수 없기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거리두기 예배를 드려야 했다. 교회마당에 나가 수칙을 준수하여 의자를 멀리 놓고 예배를 드렸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졌고, 상황이 심각할 수록 수칙이 변화했으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행정명령까지 경험하게 되었다.[4]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하기에는 장비, 인력,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회중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홍도교회 신앙공동체에게 예배문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몇 주를 예배문을 나누어 줄 때, 나에게 이러한 고민이 생겼다.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려 예배문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홍도교회 신앙인 중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면 예배문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홍도교회 상황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이지만 고령층 신앙 공동체에선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겼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자 수가 감소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지?'라는 목회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같이 젊은 목회자를 만나면 항상 나의 질문은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였다. 그리고 지인 부목회자(이하 부목사)에게 '영성이 아니라 영상을 배워야 했다'면서 영상 작업을 할 수 없어서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거리두기 4 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July 21, 2021,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6528.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는 젊은 목회자가(이하 MZ 세대 목회자)[5]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 집례에 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in Practical Theology) 과정을 이수하였다.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 중의 하나인, 질적연구방법(Research Methods & Project Seminar)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다. 김남중은 "연구의 주제는 삶과 연관되어야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6]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 변화가 나에게 큰 고민을 주었듯이, 나와 같은 MZ 세대 목회자들에게도 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MZ 세대 목회자들의 임지가 다르기에 고민하는 것도 다를 것이다. 고령층 신앙공동체를 담임하고 있거나, 임대교회로 신앙공동체를 담임하거나, 부 목회자로 있으면서 교육부나, 성인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위치에 따라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들이 다양하거나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특별히 MZ 세대 목회자가 속해 있는 감리교와 연회 지방에서 온라인 예배에 관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하였다.

현재[7] 상황은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추세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언제 다시 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다른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위기 상황으로 교회가 다시 폐쇄될

---

[5] MZ 세대에 대해 고광열은 1981 년부터 1995 년생을 밀레니얼 세대 (이하 M 세대) 1996 년 이후 세대를 Z 세대라고 부른다. 이것을 2022 년 기준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M 세대는 42 세부터 28 세이며, Z 세대는 27 세 이하이다.

[6] 김남중, "Research Methods and Project Seminar" (lecture, Doctor of Ministr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anuary 7, 2020).

[7] 2022 년 4 월 18 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 년 1 개월만에 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pril 15, 2022.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다시 집례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MZ 세대 목회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와 감리교를 이끌고 나갈 목회자들이다. 그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예배를 집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급변하는 예배 방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집례 경험은 감리교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할 것이다.

MZ 세대 목회자들은 코로나를 통해 예배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MZ 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 집례 중 회중들과 무엇을 경험하는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 감리교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해 보려 한다.

B. 논지와 토론

이 프로젝트의 관심은 코로나 감염병 시기 MZ 세대 목회자의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예배 형식이 급변하였다. 이처럼 급변했던 예배들에 관한 신학이 논의되고 있으며, 예배의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가 2020 년 6 월 15 일에 개최한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교회들은 주일성수와 소속감 약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출석교인의 감소에 대한 염려를 토로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했다고 답변하기도 했지만, 현장예배로 복귀를 바라고 있을 뿐, 정작 온라인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는 교회는 7.7%에 불과하여 코로나 현실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8]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9317.

[8] 손의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 노인사역 전략과 실천 방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124 (2022): 405-06.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었다. 첫째,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간의 편의주의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통한 현장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온전한 봉헌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이다. 넷째, 일방적 소통만 있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 공동체의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람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9]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 대해 이미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존재하기에 온라인 예배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첫째, 온라인 예배도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예배이다. 예배의 기본 형식인 4 중 구조(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하나님 말씀의 선포, 감사와 응답, 세상으로 나아감)의 틀을 온라인 예배도 가지고 있으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둘째, 사람들의 일, 섬김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성찬과 온라인 예배를 위한 환경을 위한 수고로움이 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공간의 문제가 온라인 예배의 불가를 말 할 수 없다. 넷째, 예배는 사회적 사건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왔다. 예수와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였지만 이후 가정교회, 다시 교회로 변하였고, 음악의 발전도 예배를 풍성하게 하였다. 개신교의 출현, 18 세기 감리교운동, 19 세기 옥스퍼드운동 등 예배는 사회적 사건을 통해 변화하였고, 이에 코로나로 인한 예배 변화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10]

---

[9] 박해정,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신학과세계* vol. 98, (2020): 189-92.
[10] Ibid, 193-98.

이처럼 코로나 이후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신학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MZ 세대 목회자들은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 예배 개념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예수교 장로회(예장통합)에서 주장하듯 현장 예배를 강조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긍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MZ 세대 목회자들이 처한 환경과 목회 환경에 따라 다른 예배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예배 개념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다수의 MZ 세대 목회자들 자리는 부교역자(부목사 혹은 전도사)일 것이다.[11] Z 세대에 해당되는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 이전 혹은 학업 가운데 있는 전도사일 것이다. 기독교 설문조사 중 부교역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 따르면, 부목사가 있는 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 이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에 주일 현장예배라고 답하였고(47%),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60%). 반면, 부목사는 코로나 이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역에 교회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답하였고(51%),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35%). 이와 같이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예배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답한 교회의 부목사 4 명 중 3 명이 미디어를 활용할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자신들이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 예배 기술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12] MZ 세대는 온라인 환경을 많이 경험하여 그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한다.[13] 그래서 기성세대 담임목사와 MZ 세대 부목사들은 온라인 예배에 관한 이해와 적응이 다름으로 인해, 이에 따른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1] 홍선경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마흔 넘은 부교역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홍선경, "나이 많은 부목사는 사절합니다," *뉴스앤조이*, October 21, 2022,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03.

[12]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 이후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넘버즈*, October 21, 2022,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6.

[13] 고광열, *MZ 세대 트렌드 코드* (서울: 밀리언서재, 2021), 39.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네이티브인 MZ 세대 목회자들은 영상편집과 온라인 예배에 능숙하게 적응할 것이다. 반면 그와 같지 못한 기성세대 담임목사는 교회 상황과 여건이 다름에도 완벽한 온라인 예배 기술을 갖춘 다른 교회의 영상 결과물들이 자기교회에서도 똑같이 산출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MZ 세대의 목회자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어도, 기성세대 담임목사는 다시 현장예배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에 온라인 예배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MZ 세대 목회자의 또다른 목회현장은 농촌교회와 임대교회일 것이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은퇴 목회자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에 관해 디지털에 강한 MZ 세대 목회자에게 기회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14] 하지만 MZ 세대 목회자가 아무리 디지털에 강하더라도, 목회하는 교회가 소규모 교회이므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장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5] 설사 장비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농촌교회와 임대교회의 MZ 세대 목회자와 부목사는 이처럼 온라인 예배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단의 온라인 예배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 장비, 인력이 갖추어진 교회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어 농촌교회와 임대교회에 적합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17 년 기독교 타임즈에서 감리교 30·40 젊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6]에 따르면, 50 대 이하 목회자들 중 10 명 중 9 명은 이 상황이라면 10 년뒤 감리교는 쇠퇴할 것이라고

---

[14] 은퇴한 유명한 L 목사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이 없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잘잘법,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길은 있다!," *YouTube*, July 28, 2022, https://youtu.be/SgKmm2Vs_Do?t=881.

[15] 손의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 노인사역 전략과 실천 방안," 424.

[16] 손동준, "말뿐인 '젊은감리회' … 현실은 '不通'," *기독교타임즈*, January 18, 2017, https://www.km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1.

응답하였다. 50 대 이하 목회자들은 감리교 안에서 10 년 목회를 하면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17] 의회 구조가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라고 70.3%가 답변하였다. 의회구조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95.9%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거권이다. 정회원 11 년급 이상(목사 안수 후 11 년차)만 감독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79%로 나왔다. 그나마 2021 년 감리교 헌법(교리와 장정) 개정안에서 감독 후보들이 20~30 대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며, 투표권을 정회원 1 년급 이상의 목회자로 개정하였다.[18] 하지만 이 상황으로 MZ 세대 목회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하기엔 감리교의 다른 제도가 없다. MZ 세대 목회자들인 감리교 90 년생 교육 전도사들을 연구한 이영진은 "교단과 교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소속되지 못하여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예비 목회자이기에 교단적인 제도와 교회의 연계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19]

향후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혹은 부목사로 목회를 할 것이다. 현재 MZ 세대 목회자들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예배 경험, 관점, 이해가 추후 한국 감리교 예배의 방향성과 모습이 될 것이다. 이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때, 또 다른 펜데믹의 상황에서도 올바로 정립된 온라인 예배 신학을 통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

[17] 감리교는 목사가 되면서 '정 1'이 된다 목회 10 년이 되면 '정 10'이후 숫자가 뒤에 붙지 않고 '정'이라고 교단내에서 정의하고 있고, 목회 경력이 쌓였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정 딱지를 뗐다' 라고 감리교 목회자들은 표현한다.

[18] 권현석, "기감, 선거법 개정 후 첫 감독 선거··· 2030 목회자 목소리 커지나," *데일리굿뉴스*, January 18, 202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80.

[19] Youngjin Lee, "Healing and Transforming Ministry Conflicts Among Korean Methodist Seminarians: Grounded Theory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Approaches"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1), 120–22.

코로나 감염병 시기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연구를 탐구하며,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MZ 세대

대한민국은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4 세대로 분류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둘째 X 세대, 셋째 M 세대, 넷째 Z 세대이다[20]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이후 급격한 출산율 상승으로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고,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세대이다. X 세대는 1965 년생부터 1979 년생까지 IMF 경제 위기로 취업위기를 겪은 세대이다. M 세대는 1980 년생부터 1994 년생까지 디지털을 본격적으로 맞이한 세대이다. Z 세대는 1995 년생부터 2004 년생까지 스마트폰을 PC 보다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세대이다.[21]

1991 년 미국 작가 닐 하우스 와 윌리엄 스트라우스(Neil Howe & William Strauss)는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천년(Millennial)이라는 밀레니얼 세대를 사용하였고, X 세대를 이어 Y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X 세대, Y 세대를 이어 Z 세대라고 칭한다.[22] 요즘 대한민국의 미디어에 MZ 세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흔히 이들을 요즘애들, 젊은이, 청년을 지칭한다. 이들을 묶어서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온 세상이면서 Z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기에

---

[20] Z 세대 다음을 알파 세대라고 분류하는 움직임도 있다

[21] 최규명, "청소년 및 MZ 세대 이해와 기독교교양 수업," *신학과 복음* vol. 12 (2022): 138.

[22] 양성진, "요즘애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MZ 세대를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vol 103 (2022): 500.

MZ 세대라고 묶어서 지칭한다.[23]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아래의 표는 비교를 잘 보여주고 있다.[24]

〈표 1〉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간 비교 (Canada, 2019)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출생시기	1980-1995	1996-2010
전 세계적인 분위기	테러리즘, 소셜미디어 확산	경기불안정, 환경오염 확산
가치관	자유, 융통성	안정감, 안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 검색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함
쇼핑 형태	몰 쇼핑, 픽업서비스	집까지 배송서비스
기기	태블릿, 스마트 PC	스마트폰, 3D 프린팅, AR/VR
의사소통 방식	페이스북, 텍스트	페이스톡
대학 진학	여전히 많은 수가 대학에 진학	대학 진학률 전 세대보다 저조(학교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많다고 생각)

〈표 2〉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간 비교 (2017)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출생 시기	1984-1996	1997-2010
주요 사건	정권교체, IMF 경제위기, 인터넷-휴대폰, 2002 월드컵, 디지털 1 세대	경제위기 상시화, 세월호-각자도생, 국제 분쟁, 한류/뉴트로, 공유 1 세대
가치관	정서적 안정, 높은 자기만족도	포용성, 개성, 다양성
디지털기기	TV, 스마트폰, 태블릿	유튜브, 사물인터넷(loT), 립싱크동영상 앱 뮤지컬리
영향을 받는 사람	셀럽	유튜브 크리에이터

[23] 양성진, “요즘애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MZ 세대를 중심으로,” 501.

[24] 오해섭 and 문호영, “Z 세대 10 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인구,” i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20-21.

정보 신뢰	검색 엔진 활용	지인으로부터 얻는 정보
소비 성향	브랜드 지명도에 따른 선호	개성 중시 맞춤형 브랜드 선호
직업관	취업 후의 자기계발 도모, 다양한 일에 도전하기 위한 샐러던트(salaryman+student), N 잡러 등	
라이프 스타일	YOLO(You Only Live One, 욜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	

MZ 세대에 대해 1981 년부터 1995 년생을 밀레니얼 세대 (이하 M 세대), 1996 년 이후 세대를 Z 세대라고 부른다.[25] 미디어에서도 MZ 세대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마케팅 시장들도 MZ 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임홍택의 *90 년생이 온다*를 통해 MZ 세대(MZ 세대에 해당하는 90 년대생)를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MZ 세대를 세상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 총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면서[26] 사고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것이다. 박미경이 말하기는 MZ 세대의 특징은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 "MZ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 중심 삶을 추구한다. MZ 세대는 나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지양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여가 증시 및 재미를 추구한다. MZ 세대들은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일과 삶의 균형중시 유행에 민감하며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다양한 존중 측면으로 타인의 삶과 취향을 존중한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거부하는 특성을 지닌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MZ 세대들은 SNS 를 통한 소통 및 공감에 능숙하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가치관 및 자아 표현에 친숙 등 기성세대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다."[27]

한국 MZ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 문제는 복합적이며 다양하지만 MZ 세대의 특징적인 이슈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젠더갈등이다. 이대남(20 대 대학 남자를 줄임말), 한남충(한국 남자

---

[25] 고광열, *MZ 세대 트렌드 코드*, 19.

[26] 박미경,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 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vol. 22, no. 1 (2022): 33.

[27] Ibid, 35.

충이라는 혐오 단어), 김치녀(한국 여자를 의미하는 혐오 단어)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의식, 태도, 행동, 선호, 정서의 차이가 상당하다. 요즘은 지역 이슈나 이념 보다는 세대, 젠더 이슈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퇴준생 인생이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준비생의 합성어이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를 준비하며 취업을 다시 준비한다. 이는 기성세대가 받아들이기에 '끈기가 없다,' '월급에 만족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들어간 회사에서 부조리, 낮은 연봉, 심각한 조직문화, 빈약한 복지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회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출산의 이유와 책임이다. 4B[28]를 주장하는 MZ 세대들이 있다. 그들의 생각에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살인 등의 충격적 사건이 발생함에도 사회적 대처가 미흡한 것이다. 이에 4B 를 외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네 번째는 공정과 평등이다. MZ 세대는 평등의 문제보다 공정에 더 민감하다. 국가의 지원을 분류할 때에 자녀가 많고 소득이 많은 가정과 자녀가 1 명이고 소득이 적은 가정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소득 수준이라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정의 논리이다.[29]

하지만 기성세대의 주류는 과거 성공에 도취되어 있어서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확신에 빠져 있다. 출산율 감소로 청년 인구(MZ 세대)는 줄어들어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MZ 세대가 살고 있는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지방은 쇠퇴하며, 저성장이 일상이다.[30]

이와 같은 특징과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 목회자는 이전의 세대 목회자들과

---

[28] 4B 란, 4 비(非) [아닐 비(非)]를 영문화하여 '4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가지는 결혼, 연예, 출산, 섹스이며, 4 가지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29] 최규명, "청소년 및 MZ 세대 이해와 기독교 교양 수업," 148–53.

[30] 전정환, *밀레니얼의 반격* (서울: 도서출판 길벗, 2019), 11.

다른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MZ 세대 목회자 대부분은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여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삶과 취향을 존중하는 사고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MZ 세대 목회자 대부분이 느끼는 시대적 상황은 젠더갈등, 퇴사와 취업준비, 4B, 불공정과 불평등, 이전과 다른 저성장 환경 일 것이다.

2.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

우리는 앞으로 2 차 코로나, 3 차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코로나 이후(after)보다는 포스트(post) 코로나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포스트(post)는 벗어난다는 뜻 탈(ex)과 전기 중기 후기(latter times)를 동시에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보다는 now and after 의 의미를 가진 포스트 코로나가 적절할 것이다.[31] 포스트 코로나는 기독교 예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이전까지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현장 예배를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설교만 추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정도였다. 코로나 이전 2020 년 약 1100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7%가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32] 그러던 중 코로나의 확산세로 한국 정부에서 집합금지명령이 교회에 내려졌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들은 현장예배를 온라인화 시키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예배에도 여러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 영상을 미리 찍어 놓고 예배 시간에 맞춰 시작하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온라인 패러다임이라고 본다.[33] 두 번째로, 영상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교회 현장의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 상으로 옮긴다. 무료 프로그램

---

[31]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부천: 워십리더, 2021) 95–96.

[32] 지용근,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in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대토론회, ed.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020), 133.

[33]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96.

OBS(Open Broadcaster Software), 유튜브, 네이버밴드, 프리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다. 현장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옮겨 드리는 예배를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이라고 본다.[34] 이 두 가지 패러다임들의 한계점은 예배를 기획하는 이들은 이전에 행하던 예배와 똑같이 준비하되, 영상장비를 통한 준비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후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여 온라인 상으로 업로드한다. 온라인 환경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모든 준비와 일을 맡게 된다. 이로 인해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예배를 집례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된다. 온라인 예배의 변화에서 목회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중도 어려움을 겪는다. TV 시청과 같은 예배를 통하여 막연함, 거리낌, 주저함, 불만족, 아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들게 된다.

3.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이란 우리 모두는 타자에게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홀로 태어날 수 없고, 갓 태어난 아기도 부모를 의지하게 되며, 인간(人間)은 사람 '인'과 사이 '간'으로 서로 기대는 존재로서, 사람의 온전성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타자를 의지할 때 유지된다는 것이다.[35] 이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것을 느끼는 환경이 되었다. 나는 코로나로 격리가 되었을 때, 식료품을 살 마트, 약품을 살 약국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의사는 지인을 통해 약을 수령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많은 지인들이 약과 음식 등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도와주었고, 나는 그들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

[34]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97.

[35]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trans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19-64.

히브리어적 이해로 성경에 표현된 '정의'와 '공의'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는 것'(사 1:17; 11:4; 렘 22:15; 시 82:2-4)을 뜻한다. 성서적 '공의'는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온전함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일을 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건강함과 온전함은 약한 사람들이 대우 받는 것에서 온다고 한다. "23 …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24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고전 12:23) 이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이, 교회가, 서로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36]

상호의존 포스트 식민주의적 여성주의 실천신학을 주장하는 김혜란은 관계적인 하나님을 말한다:

>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서, 상호의존성의 관계로 만들어진 우주와의 관계성 속에 계신다. 이 논지를 증명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 취약한 사람, 약한 사람, 타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타자(the Other)이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면서 편을 들지 않거나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창 16:13) 공감적 존재다.[37]

하지만 현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되었으며 개인화가 주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신학에서 상호의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무도회를 폭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36] Hye 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65-66.
[37] Ibid, 67.

실천신학에서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자를 희생시켜 소수의 몇몇만 이익을 보는 형상태를 영속화 하는 평등과 개인의 자유라는 가장무도회를 폭로해야 한다.[38]

또한 김혜란은 "예배에 다섯 개의 R 이 있다. 의례(Ritual), 계시(Revelation), 응답(Response), 관계성(Relationship), 리허설(Rehearsal)인데 이는 예배의 신학적 기초"라고 부른다.[39]

의례(Ritual)는 반복적이며, 공동체를 통해서 상징적 의식이 생긴다고 말한다. 계시(Revelation)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만나는 개인적 만남도 있지만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된다. 응답(Response)은 하나님이 베푼 사랑에 대한 인간의 찬양, 감사, 중보행위이다. 관계성(Relationship)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코이노니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리허설(Rehearsal)은 하나님의 친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배는 급진적 실천이며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신분, 출신, 연령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0] 상호의존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예배 상호의존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세상을 향해 예배한 인간들이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

---

38 Ibid, 71.

39 Hye 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128.

40 김혜란,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lecture, Doctor of Ministr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August 20, 2020).

D. 청중

이 논문의 주된 독자 및 청중은 나 자신이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집례 방법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연구 질문이 생겼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배 집례에 관한 신학적 사고가 넓어지고,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 목회자들이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지만 MZ 세대라는 특징과 코로나 이후 예배 집례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그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이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감리교단이다. MZ 세대 목회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기회가 없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감리교 목회자들은 세대적 이해의 간격이 생기게 될 것이며, MZ 세대 목회자와 기성세대 목회자는 양극화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앞으로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와 기성세대 목회자가 상호의존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

E.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이 연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집례를 경험한 MZ 세대 목회자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이다. 훗날 한국교회 담임목회자로 예배를 집례하게 될 MZ 세대 목회자들은 예배를 넘어 목회 돌봄, 선교, 기독교교육, 상담 등 더 많은 신학적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예배를 연구하는 것에 제한을 둔다. 또한 예배 가운데에서 포스트 코로나 현장 중심 예배에 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MZ 세대는 그 나이가 포괄적이라, 많은 인원들이 이에 속한다. 10 명의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 심층면접으로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이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를 겪었지만 사역을 하지 않고 학생(혹은 성도)의 입장으로 있는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의 경험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지만 감리교 MZ 세대의 이전 목회자들의 경험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F.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코로나 경험에 대한 수치들과 통계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인류 전체와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에 관한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가 짧아 연구의 자료가 미비한 상태임이 틀림없다. 특히 지금 논문과 같이 질적연구에 관한 기독교의 자료는 더 미비한 상태이다. 교육학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의 질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목회자의 질적연구는 없다. 특히 MZ 세대 목회자들을 향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MZ 세대로 검색하면 수많은 관련 논문들과 책들이 나왔다.[41] 하지만 MZ 세대 목사, 목회자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에는 단 하나도 검색되지 않았다.[42] 그리고 MZ 세대 목회자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나 기사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감리교에 해당되는 MZ 세대 목회자 연구도 없다. 향후 한국

[41] 국내 학술전문지 DBpia 에 MZ 세대를 검색했을 때 TOP1%(2 년간 이용수 순으로 매월 1 일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저널과, 잡지가 있으며, TOP5%, TOP10%등 여러 분야에서 MZ 세대를 연구하고 있다. 구글에 MZ 세대를 검색했을 때 뉴스 기사는 약 5,010,000 개에 해당된다. February, 9, 2022, https://www.google.com/search?q=MZ+%EC%84%B8%EB%8C%80&tbm=nws&sxsrf=APwXEddFNF5tVmqbQ0sSwBGAEhqHFsiwgQ:1680580382578&source=lnt&tbs=ar:1&sa=X&ved=2ahUKEwiG8eDlqY_-AhV_klYBHd2IBugQpwV6BAgBEB4&biw=1080&bih=1777&dpr=1. 국내도서 사이트 교보문고에 MZ 세대를 검색했을 때, 국내도서로 102 개의 책이 검색되었다. February, 9, 2022, https://search.kyobobook.co.kr/search?keyword=MZ%EC%84%B8%EB%8C%80&gbCode=TOT&target=total.

[42] DBpia 에 MZ 목회자를 검색했을 때 MZ 세대 신앙인에 대한 논문은 존재하지만 MZ 세대 목회자에 대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감리교의 목회자로 교회를 이끌 MZ 세대 목회자들의 경험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목회자들이 예배 집례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예배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들을 올바른 예배로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 집례 방법에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예배 신학에 고민하고 있는 MZ 세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The Qualitative Method and Procedure)

A. 질적 연구 방법론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감염병 시기에 온라인 예배 경험이 있는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 기초하여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를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징은 내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다.[43]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구이다.[44] 질적 연구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이 1 명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45]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정의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46] 기존의 관점과 연구자 경험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47] 그리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으로 간주하여 직관적으로 체험 혹은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다.[48] 현상학은 인간에 의식속에서 사물, 현상의 경험을 전제 없음과 편견 없음으로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다.[49] 김영천은 "인간의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며,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

[4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50.

[44]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2019), 28.

[4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127.

[46] Ibid, 116.

[47]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345.

[4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60.

[49] Ibid, 143.

본질이 되는 체험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50]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험과 감정, 체험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집례를 해 본 MZ 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연구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예배 안에서 돕는 자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고 싶지만 온라인이 어려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B. 연구 참여자

나는 코로나 감염병 시기에 온라인 예배 집례를 경험한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례를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목적 표집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51] 기준에 부합한 핵심 연구 참여자를 선정 후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 대상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선정 방법을 사용하였다.[52] 이미 코로나를 경험한 MZ 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 집례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성별, 연령별, 목회상황별로 다양한 비율을 고려하여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 그리고 여성 목회자를 포함한 10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MZ 세대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M 세대 30 대 목회자부터 Z 세대 대학원을 재학 중인 24 세로 한정하였다. 단, 코로나 기간 동안 임지를 옮기지 않고, 코로나 감염병 시기에 온라인 예배 집례를 경험한 MZ 세대 부목사들(혹은 전도사). 농촌 담임목사(전도사), 임대 담임목사(전도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감리교 안에 13 개의 연회가 존재하고, 목회 상황의 다양성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측면의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

5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4.
5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Ⅰ: Bricoleur,* 155.
5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249-50.

한정된 연회의 목회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MZ 세대 여성 담임 목회자를 모집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여성 연구 참여자를 2 명 모집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는 중 성도가 없어서, 코로나 시기에 가정예배로 드렸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해주었고,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감리교의 다양한 연회(지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근접 지역은 대면 인터뷰를, 장거리에 있는 목회자들은 줌(Zoom)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목회자들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사전에 카카오톡(Kakao Talk)으로 전달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분	나이	성별	목회의 자리	목회대상	연회
연구참여자 A	29 세	남	도시 수련전도사	청년 청소년	A
연구참여자 B	35 세	남	농촌 담임목사	노년	B
연구참여자 C	25 세	여	도시 파트전도사	취학아동	A
연구참여자 D	34 세	남	농촌 담임목사	노년 청소년	C
연구참여자 E	38 세	남	도시임대 담임목사	장년 청년	C
연구참여자 F	38 세	남	농촌 담임목사	노년	D
연구참여자 G	27 세	여	도시 파트전도사	미취학아동	E
연구참여자 H	34 세	남	도시 부담임목사	장년	F
연구참여자 I	30 세	남	도시 파트전도사	청소년	A
연구참여자 J	31 세	남	도시 수련전도사	장년 청소년	G
연구참여자 K	24 세	여	농촌 파트전도사	장년 취학아동	G

나는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인터뷰 시간이 60 분 내외라는 것, 녹음하고 필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 그리고 비밀 보장이 될 것 등에 동의를 구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곳을 택할 것이나, 공개적인

장소를 택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이 공간을 원하지 않을 시,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간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과 함께 필사되어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소중히 다룰 것은 물론,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와 녹음에 대한 동의는 물론, 인터뷰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졌다. 인터뷰 과정 중 연구 참여자가 신분을 밝히거나 질문의 내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의 문제는 물론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 정보와 익명성을 보호하는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연구 윤리의 확보를 위해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22-02)을 받고 인터뷰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감리교 교단내에 MZ 세대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었다.

C. 연구 진행 방법 및 절차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자료의 수집은 인터뷰를 통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김영천은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하였다[53] 또한 반구조화 된 면담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제한한다. 또한 개방적인 형태의 질문 형식으로 연구 대상자의 느낌, 입장,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질문의 범위와 폭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54]고 말하였다. 이에 인터뷰를 한 차례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질문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준비된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예배 집례에서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 그리고 심층 면담에 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면담 가이드 질문을 작성했다.

〈표 4〉 연구 프로젝트 면담을 위한 질문

면담 가이드
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집례한 경험이 있나요?
②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집례했나요?
③ 현재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고 있나요?
3-1. 집례하고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있나요?
3-2.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집례하지 않고 있나요?
④ 온라인 예배 때 어떤 사역을 하나요?
⑤ 온라인 예배 때 예배 준비자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나요?
⑥ 온라인 예배 때 장비를 사용하나요?
⑦ 온라인 예배를 회중 입장에서 드려본 경험이 있나요?
7-1. 드려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2. 그리고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요?
7-3. 경험이 없다면 회중들은 무엇을 느낄 것 같나요?
⑧ 온라인 예배 때 회중들은 무엇을 경험할 것 같나요?
⑨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도 집례할 예정인가요?

[5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24.
[5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26.

9-1. 집례할 예정이라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인가요?
9-2.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⑩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⑪ 온라인 예배에 대해 도움을 (교회, 교단) 받은 적이 있나요?
⑫ 온라인 예배에 대해 도움을 (교회, 교단) 받는다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나요?

연구 참여자 중에는 사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터뷰 전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원활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중지 항목을 만들어 괄호치기를 하였다.

〈표 5〉 면담을 위한 판단중지

판단중지
① MZ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만 추구할 것이다.
② MZ세대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를 반대할 것이다.
③ 다른(기성) 세대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만 추구할 것이다.
④ MZ세대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다른(기성) 세대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⑤ MZ세대 목회자들은 신앙공동체에게 온라인 예배를 권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⑥ MZ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 집례를 쉽게 생각 할 것이다.
⑦ MZ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기를 잘 다룰 것이다.
⑧ MZ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도움(기기, 인력)이 없어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⑨ MZ세대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주장할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판단중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구참여자의 체험 혹은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입견을 제거해야 된다.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e),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괄호치기(bracketing) 같은 개념이 신념과 선입견을 보류하며 경험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게 된다.[55] 나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괄호치기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였고, 녹음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면담 가이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였다. 녹취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삼성(Samsung)사의 NT551EAA 로 진행하였다. 줌을 통해 인터뷰를 할 때에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Naver Clova-note)와 연동시켜 자동 텍스트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된 텍스트를 Microsoft 사의 Word 프로그램에 옮긴 후 녹취를 다시 들으며 자동 텍스트화 되지 못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녹취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자료의 완성도를 높였다. Word 프로그램의 편집용지 US Letter 기준으로 글자 크기 11 포인트, 줄 간격 2.0 으로 165 페이지, 29359 자로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별 심층 면담 녹음 및 텍스트화

연구참여자	녹음시간	필사분량(쪽)	한글 문자 수(자)
A	66	19	3518
B	33	13	2280
C	53	21	3930
D	27	13	2307
E	35	14	2734
F	28	15	2953
G	33	15	2464
H	29	14	2548
I	28	12	1963
J	41	17	3153
K	22	12	1509
평균	35.9	15	2669

[55]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60-61.

문서로 만들어진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그에 연동되는 드롭박스(Drop box)에서 제공하는 웹하드에 저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약속했던 비밀 유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파일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고, 연구 참여자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이름을 알파벳 문자화 시켰다.

나는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콜라이지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기 MZ 세대 목회자의 공통적인 경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집례의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여,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는 다음 5 단계로 진행된다:[56]

1. 기술들을 읽기
2.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기
3.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
4.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하기
5.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 확인하기

나는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하고 필사한 자료를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줄 단위 분석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코딩 작업을 통해 범주와 개념 및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또한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전자저널(www.DBpia.co.kr), 국내학술검색시스템(http://kiss.kstudy.com)을 통해서 관련 분야의 서적 및 선행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아울러 연구 기간 동안 논문 지도 교수와 긴밀히 소통함으로 지도와 조언을 구하였다.

---

[5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Methods*, 107.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분석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46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12 개의 주제군, 4 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은 아래의 표로 요약하였다.

〈표 7〉 콜라이지 분석 절차에 따른 결과 분석

범주	주제군	의미 있는 진술
온라인 예배 경험	온라인 예배의 유익성	- 소극적인 친구도 댓글을 닮으로,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로한 성도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예배를 할 수 있었다. - 부모가 예배에 못나오게 하는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교회 헌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배 배달이 생겼다. 교회 못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담임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사역자가 찾아가 예배 드린다. - 거의 매주 등산하러 가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등산하러 가서도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실시간 채팅에 남긴다.
	공동체성의 결여	- 통성기도의 어려움. -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많음. - 비대면 예배를 끝내고 빨리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싶은 아이들. - 자녀들이 집에 찾아 온 경우 예배 참석을 안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회중의 어려움	- 내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버튼을 누르면 내 소리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등 조작의 어려움이 있음. - 기술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따라가기 어려워 선생님들이 소외 되는 느낌을 받으심. -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 - 유튜브로 분석해 보았을 때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하기 어려움.
	온라인 예배의 다양화	- 초반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 업로드. - 다음에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

MZ 세대 목회자의 온라인 예배		- 라이브 톡을 이용함. 라이브 톡은 일반적으로 그 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방장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운동장에서 라디오 예배를 행함. - 줌이라는 프로그램 이용. 얼굴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늘어난 노동	- 공과시간을 줌을 이용해서 해야함으로 예배 및 2 부 순서 준비함에 시간을 더 쏟음. - 2 부 활동 만들기 자료들을 택배로 내야 하기에 작업량이 많아 짐. - 예배 준비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함. - 설교 외에 영상 작업이 추가됨. - 녹화 영상을 송출할 경우 녹화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함. - 예배가 아니라 일로 느껴짐.
	회중으로의 경험	- 집중이 어려움. - 처음부터 끝까지 1 시간 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음. -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목회자인 나조차도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음.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 인식	현장과 온라인의 병행	- 온라인 예배는 불가능이 없는, 제한이 없는, 예배이다. -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 이미 온라인 예배는 열렸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현장 예배 주장	- 현장 예배가 기준이 되지 않은 온라인 예배는 필요 없다. - 이벤트성으로 하는 정도의 선에서만 하고 현장 예배로 모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
관심의 결여	상호의존적 경험	- 설계해준 업체들에게 질문해서 장비 사용 부분과 장비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음. - 재정적인 도움만 받음. - 300 만 원 정도 컴퓨터와 장비 지원. -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추천으로 정보를 공유.
	무관심	- 줌과 같은 프로그램도 시골 목회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데 다른 대안 부족. - 학교에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신학을 가르쳐 주었는데 전도사로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
	도움 요청	- 감리교 안에서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교단내에서 자체 조사를 통한 가이드 라인 제시. - 가정에서 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제시. - 늘어난 일로 인해 사역자가 부족함.

1. 온라인 예배 경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도출된 범주는, '온라인 예배 경험'이다 코로나로 인한 선택 불가 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온라인 예배의 유익성'이다. MZ 세대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나 부교역자의 자리에 있거나 차이가 없었다. 회중의 연령이 노년층, 청년층, 아동층이 되었던지 어떤 세대라도 온라인을 통한 예배에 유익한 부분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B] *현재 새벽 예배 때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날씨가 춥고 길이 얼어서 시골에는 연로한 성도님들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오려면 언 유리를 다 해결을 해야 하고, 차도 시동을 걸어 놔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코로나 때 했던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 훨씬 좀 쉽고 안전하게 예배를 할 수 있겠다는 말을 성도들이 요청을 해 왔어요. 난방도 이제 30 분 정도 전에 틀어 놔야 일단은 따뜻해지니까 새벽 예배 때 난방비도 줄여보고자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합해져 다시 영상 예배를 새벽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 [연구 참여자 C]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소극적인 친구들의 대답을 흘려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적극적인 친구들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줌에서는 소극적인 친구여도 댓글을 닮으로써 모든 참여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손 드는 것만으로도 그게 표현이 가능해요 정말 한 명 한 명 모두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한 화면에 이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부모님이 못나오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전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줌으로 댓글에 참여하면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이 아이한테는 또 다른 기쁨이 되었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 [연구 참여자 E] *그 친구의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상 봐라 영상 봐라 설교 들어봐라 주일 실시간으로 들어도 되고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해서 영상들을 채널에 들어가서 봐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 두 번 보긴 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거의 매주 등산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때도 들어와서 실시간 채팅에 남기기도 해서 좋은 효과들도 있죠.

[연구 참여자 F] *예배 링크를 자녀들한테 비공개로 해서 일부 공개로 해서 보냅니다. 이유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십일조를 보내던가 자녀들이 감사헌금을 보내는 상황으로 외부 헌금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라인 계좌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계좌번호로 보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J] *예배 배달이라는 거를 해요. 도구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문 편집해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그 영상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돌아오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는 활성화가 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예배 형식과 공간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그리고 현장에서 느낄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모두 평등한 조건으로 소통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단방향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 예배 집례자로 현장 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성의 결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온라인 예배를 하면 회중이 기도하는 통성기도라고 해야 되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B] *현장예배 새벽기도회 때는 이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기도는 자유롭게 하다가 교회에서도 돌아갔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기도할 때까지 켜 놓지 않거든요. 설교를 다 하고 끄고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방송을 끄는 상황입니다.*

[연구 참여자 C] *화면에 끝나는가 댓글도 달지 않고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 화면도 끄고 댓글도 안 달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현장에서는 그 아이가 일단 앉아 있기라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어렵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F] *영상 예배가 있으니 자녀들이 집에 왔다고 예배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영상 예배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를 대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게요' 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며 회중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을 목회자들이 듣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관한 보완점을 돌아볼 수 있는 응답들이었다. 특별히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고령층과 집중을 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B] 줌 *어플을 설치해드렸는데, 뭘 누르지 않으면 내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뭘 누르면 내 소리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줌은 양 방향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카카오톡은 그냥 일방적으로 방송을 켠 사람만 얘기를 하니까 기기를 다루는 것에 전혀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줌은 실패를 했어요.*

[연구 참여자 C] *선생님들도 되게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한다, 애들 따라가기 어렵다, 내가 너무 늙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연구 참여자 D] *어르신들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영상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기 다루기를 어려워하시고 접하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온라인 방법을 접고 아날로그 방법으로 간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가정 예배식으로 그렇게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구 참여자 G] *미취학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스스로 예배를 찾아서 드릴 수는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개입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면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도 하고, 아이들의 연령 특성상 집중 시간이 짧아서, 유튜브로 분석해 보았을 때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온라인 교회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온라인 예배의 시 공간의 제약 없는 강점과 공동체성의 부재라는 단점과 회중 예배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의 특수성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목회자가, 교회가, 교단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강점은 부각되며, 단점은 보완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2. MZ 세대 목회자의 온라인 예배

코로나 시기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온라인 예배 형식에 따른 MZ 목회자들의 특징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세대 목회자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목회의 자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MZ 세대 특징이 반영되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는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는 MZ 세대의 특징인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온라인 예배에 다양성을 시도해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 *청년들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녹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업로드 해서, 예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갔었다가 … 또 온라인 예배 처음 시도에는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하고 그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하고 … 줌으로 했던 게 이벤트성이었던 것 같아요. … 1 부 예배는 유튜브로 하고 2 부는, 이제 소그룹 모임은, 줌으로 모이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카카오 메신저의 라이브 톡은 방장의 얼굴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그 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방장을 보면서 방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방장은 참여자(성도)들을 볼 수 없지만 대신 채팅으로 소통합니다 … 그래도 예배니까 좀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좀 갖춰서 얼굴 볼 수 있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의견을 주셔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줌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D] *실시간 방송 라이브 톡을 했을때는 혼자 외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는 좀 더 댓글 방식등의 형식이 라이브 톡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이제 어찌 됐든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I] *유튜브로 진행 했는데, 단방향성으로 하는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줌이 유행을 해서,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하여서, 소통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줌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예배를 시도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함으로 목회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고령 신앙인을 담임하고 있음에도 예배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도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을 잘 다루어서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과 다르게 부교역자들은 온라인 예배로 인해 늘어난 노동(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교육부의 교제를 위해 늘어난 노동도 있지만, 교회의 방침으로 늘어난 노동도 있었다.

> [연구 참여자 C] *공과 시간에는 서로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기도 하고 교재가 충분히 되는데, 줌으로 하거나 유튜브로 하려면 콘텐츠 준비하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제가 아는 여자 부목사님이 영상 예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애들이 있지, 밥도 해야 되지, 또 청소도 해야 되지, 또 쉬어야 되지, 영상을 또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 [연구 참여자 G] *영상 촬영한 예배 업로드도 하고, 현장 예배도 또 드리고,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거죠…진행됐던 2부 활동 만들기 자료라던가, 활동 자료들은 택배로 다 가정마다 보냈었어요. 한 두 달치를 다 보내서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본 예배가 이루어지고 후에 2부 활동까지 진행되게끔 준비했어요.*

> [연구 참여자 H] *성도들이 직접 이제 막 접속하는 연령들이 있으니까, 각 교구나 교육부 혹은 각 공동체 카톡방에 목회자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 그 링크를 새벽 저녁 그 다음 주일 마다 계속 공유를 해줬어요.*

> [연구 참여자 J] *불편했던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밴드를 켤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밴드를 사용하실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키고 끄고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 [연구 참여자 C] *목사님께서 인원 수에 되게 많이 강박 집착…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드렸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았어요. 부목사님들도 '예배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인증샷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늘어난 업무 등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예배 집례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에 후속 사역인 설교영상 편집과 영상 업로드를 포기한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다. MZ 세대 목회자가 디지털을 잘 다루기에 부여되는 사역 업무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경험이 있었다. 바로 연구 참여자 자신이 회중이 되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경우이다. 디지털에 적응이 빠르고, 디지털 소통이 원활한 MZ 세대 목회자들이 회중 입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을 때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회중으로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회중으로 예배를 참여해보니 느슨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집안에서 집 소파에 앉아서 집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느슨해지는 부분도 찰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회중으로 드리니 지루한 면이 있더라고요. 자막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의 차이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D] *회중으로 …단점은 집중이 조금 잘 안 된다, 생활 소음이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더라구요.*

[연구 참여자 G] *이제 준비되지 못한 자세, 옷차림, 편한 복장, 편한 자세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회중으로 들여보니 예배가 예배가 아니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목회자인 나조차도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예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예배적인 요소들을 너무 살피고 있더라고요. … 저는 이제 조금 일반 회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중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I] *제가 회중으로서 들어보니까, 일단 현장감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이게 마음먹으면 무조건 딴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마음먹으면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J]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옷 입고 자세 바르게 하는 것에 유혹이 너무 많고 아기 있으니까 기저기 갈아줘야 되고 뭐 하면 집중이 없고요.*

[연구 참여자 K] *회중으로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예배는 드리지만 화질 등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화질이 안 좋아서 그냥 듣는 개념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단 3 명의 연구 참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 예배 회중 참여 경험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3 명은 담임목사로 누군가 예배 집례할 때 부분 설교나, 광고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누군가 집례하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본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회중으로서 불편함을 호소한 MZ 세대 목회자들은 예배를 참여하는 회중들의 경험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지속성과 예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3.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열렸기에 계속 지속되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위의 회중 경험에 따라 온라인 예배도 인정하지만 현장 예배를 지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자율에 맡기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율로 맡기게 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목회자, 지도자로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다시 알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어요. 시대적으로 주일 안 쉬는 사람들 많거든요. … 현장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로 묶어 가기가 쉽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 온라인 예배 하는 방법이 아직은 정말 많이 미숙하지만 연구를 좀 하고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면 그게 또 하나의 모임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영상 예배가 거의 대부분 현장 예배를 불가피하게 못 드렸을 경우에 드리는 대체품으로만 쓰였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훨씬 더 유리함을 갖고 있는 영역들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그것을 넘어 예배 외적으로 공동체성을 증가시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발전시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영상예배는 불가능이 없는, 제한이 없는, 거리에 제한이 없고, 통제해야 되는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게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 성찬이라던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게 되는 실전의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상 예배는 없다고 생각해요. … 영상 예배는 대체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C]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게 교회인지를 재확인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지키되 변화해 가는 이 세상 안에서 교회도 그 변화해 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곳이니까 교회의 모습은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H] *온라인 예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저는 이제 새롭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 예배는 열렸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온라인 예배가 옳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중 입장에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 기존 교인들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3 자 교인, 혹은 낙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회는 분명히 예배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분명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I]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 놓고 세팅해 놓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없애지 못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추가된 느낌이어서…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폼이 생긴 것이어서, 폼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더 특별하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저는 온라인 예배는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나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와서 그냥 그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K] *어쩌다가 병원에 가시는 경우,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또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집중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에 거부감이 없는 MZ 세대지만 현장 예배를 주장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지만 현장 예배가 없는 온라인 예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E] *좀 보수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젖어 들면 나중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F] *저는 무조건 현장 예배가 기준입니다. 현장 예배가 기준이 되지 않은 온라인 예배는 필요 없다…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시간, 그리고 물질.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 예배가 중심이고 그 현장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지, 나는 무조건 혹은 온라인 예배,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성과 그 건강성을 의심하게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연구 참여자 G] *저도 온라인 기기를 준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만 제가 생각하고 고민을 했지, 이게 진리에 가까운 예배인가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자체가 그냥 이런 기술적인 질적인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러한 장비 체제만 자꾸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다 축소시키고, 그냥 본질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J] *어떤 친교나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정도의 선에서만 하고 현장 예배를 모이는 데 더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어도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지,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저도 이제 예배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 예배를 하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MZ 세대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배이지, 온라인 예배만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없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 현장 예배에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정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온라인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관한 방법과

온라인 예배 패러다임은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경험한 온라인 예배가 제한적인 것 같아 보였다.

4. 관심의 결여

온라인 예배에 관한 경험들이 쌓인 MZ 목회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는 현장 예배로 다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펜데믹 시기인 코로나 초기 때 이들을 지도하며 보호하고 있는 교회나 교단에서 또는 학업중인 학교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MZ 세대 목회자들과 교회, 교단, 학교가 펜데믹의 시간을 어떻게 교류하며 지나왔는지, 그 경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다. 지원을 받거나, 혹은 지원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

[연구 참여자 A] *제가 속한 지방이나 연회에서 따로 이렇게 코칭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고 교회 영상을 설계 해 준 업체들이랑 이야기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재정적으로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지방과 연회에서 받았는데, 연회에서는 50-60 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던 것 같고, 지방에서도 한 100-120 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O 교회에 방송 장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어서 300 만 원 정도의 영상 예배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들을 지원 받았습니다 … 코로나라고 해서 속한 지방이나 연회 차원에서 십시일반 한 돈들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 주일날 떡을 다 하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더 사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연구 참여자 G]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가 그래도 나름대로 꾸려져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도움 받으러 왔었습니다. …타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러 오셨어요.*

[연구 참여자 I] *대학원 다니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속한 교회가 위치와 크기도 달랐어요. 그래서 a 전도사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근데 b,c,d 전도사님 교회는 다 다르니까 아이디어 공유를 했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었던 것 같아요.*

교회와 교단의 도움이 있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살핀 것이 아닌 다수의 필요에 접근한 것일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거나, 예배 회중의 고령화로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목회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MZ 세대 목회자들의 목회상황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에 관한 도움이 학교에서 있었으나, 크게 도움되지 않거나, 전도사로 집례할 수 없는 성례전 등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B] *한 번은 G 교회에서 진행하는 줌 강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딱히 뭐 큰 도움은 없었어요. 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무슨 기계를 사야 된다, 기계를 사면 더 송출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시골 목회에서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 알려주실 때 저에게는 별로 크게 이제 관심 밖의 분야였어요.*

[연구 참여자 D] *연회나 지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며 세미나를 진행하지만, 기술적인 온라인 예배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I] *교수님이 화면 속에 준비해 놓고서 학문적으로 어떻다고 강의 하시는데, 전도사로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의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도움되지 않았지요.*

대부분 도움을 받은 기억에 관해 이야기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 불편해 하거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혹은 앞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거나, 유사한 집합금지 명령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기술적 도움과 신학적 도움이라는 두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A] *교회에 바라는 것은 교회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 했어요.*

> [연구 참여자 B] *연회나 본부 차원에서 예배 전용 앱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줌은 복잡해서 들어가기 어려운데 누르기만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앱을 개발해주었으면 좋겠네요.*

> [연구 참여자 D]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리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 좋지 않을까? 미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연구 참여자 E]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적어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중저가 가격의(100-200 만원) 방송 장비들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연구 참여자 I] *교단 내에서 여건이 안 되어 장비를 못 사는 교회에게, 최소한의 장비 키트들을 교단 내에서 지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 교육 요청을 하였다. 온라인 예배에 관한 신학적 요청과 온라인 예배를 경험할 때 수반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MZ 세대 목회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대한 도움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도 토로하였다.

> [연구 참여자 C]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가 왜 교제를 가져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교제 친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공동체에 관한 신학적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선택이 생겼거든요. 집에서 드려도 되는 상황이고, 교회에서 드려도 되는 상황이고…집합 금지일 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다가 집합 금지 해제 이후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 G] *저는 본부 홈페이지를 유심히 봐요. 특별히 교육국을 자주 보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하는 알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정에서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H] *성도들에게 정부에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지침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 가야 한다 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단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확한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성도들이 납득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누구는 아니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 계속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을 잠재우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신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신학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지침이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교단, 학교의 관심에서 신학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신학적 도움을 말하는 연구 참여자가 없었다. 그들 스스로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상황을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었다.

Chapter Ⅲ

논지와 관련된 문헌 자료의 이론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Data Related to the Thesis)

A.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장을 열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이 나왔고, 이에 따른 책과 질의 응답 등이 활발하다. 집합금지 명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펜데믹 이전의 현장 예배로 예배를 회복한 것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인터뷰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11 개 교회 중 10 개 교회에서 모두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고 있었다. 1 개 교회도 고민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다. 현장 예배를 유지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한명 이상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자가 증가하는 상황[57]에 있으며 코로나 변이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상황에 있기에 언제든지 현장 예배가 중지되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복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예배에 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예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할 때, 온라인 예배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빌리암 나아겔(William Nagel)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에서 신약성서부터 시작하여 속사도, 가톨릭, 동방교회, 그리스정교회, 서방교회, 로마교회, 루터의 종교개혁, 스위스 개혁교회,

[57] 2022 년 12 월 20 일 기준 1 주일새 11.2% 증가하였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434.

영국교회, 종교개혁 교회 등의 순으로 시대에 따라 예배 형태의 변화와 그 의미의 변화를 설명한다. 빌리암 나아겔은 "예배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교 민족의 특수성과 문화적인 환경과 역사가 예배 형성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예배의 구조적인 발전 성과가 있었다."[58]고 주장한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때마다 시대에 만들어 놓은 상에 사로잡히고,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나, 본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대 교회도 이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현실로 출발하였다고, 한스 큉(Hans Küng)은 *교회*에서 주장했으며, "실제적인 교회의 본질은 역사적 형태에서 일어난다"[59]고 하였다. 이처럼 예배와 교회는 시대의 현실과 현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 [연구 참여자 C]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왜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게 교회인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지키되 변화해 가는 이 세상 안에서 그 변화해 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곳이 교회이니까, 교회의 모습은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우리 말로 예배(禮拜)중 예(禮)는 넓은 의미로 습관이나 풍속으로 만들어진 규칙, 도덕 등의 예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의식을 의미하고, 배(拜)라는 의미는 상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이를 합쳐 신적 대상을 향한 최고의 경배 의식이다. 이러한 예배를 열심과 결부시켜 과거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신학과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또한, 성경 안에서 예배 모습을 볼 때에 그 시대와 상황이

---

[58] William Nagel, *Geschichte des christlichen Gottesdienstes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trans. 박근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68.

[59] Hans Küng, *Die Kirche 교회*, trans 정지련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6.

있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는 메시지 전달자들이 독점적 지배자가 되면 예배가 변질될 수 있으며, 예배와 영상의 유관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60]

예배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첫째, 예배의 역사, 둘째, 예배의 조직신학적 접근, 셋째, 실천신학적 접근이며, 현대교회는 비판적 고찰과 성찰이 필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든 움직임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움직임들을 강화시키며, 정신의 움직임은 육체의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개신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건으로만 정의내려왔다. 인간의 커뮤니티는 언어적인 면을 뛰어넘어 비언어적인 몸의 예배 통전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이것은 폭넓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61] 이 주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예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상 편집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교가 중심이 되었던 개신교는, 온라인화의 처음 시작이 설교 편집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마치 설교만 들어도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겼다. 교회마다 영상 작업에서 중점으로 여기는 것이 설교 편집이다. 그런데 이 일은 노동의 시간을 많이 빼앗으며, 설교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연구 참여자 F] *아는 지인이 부목사인데 영상 예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있지, 밥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되겠다, 영상 만드는 것 때문에 영상에 내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목회가 흐려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 했었어요..*

---

[60] 김순환, *예배학총론 예배와 삶의 통섭을 추구하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1-143.

[61] 안선희, *예배 이론 예배 실천* (서울: 바이북스, 2013).

이에 설교에 집중되어 있는 예배에서 전체적인 예배 구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 예배에서 몇 가지 되짚어볼 요소들이 있다. 첫째,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하는 안목이다. 둘째, 많은 교회가 기도(예배)가 신앙(믿음)을 형성한다는 집회적 영성으로 인해 예배의 4 중 구조, 성찬의 회복, 교회력의 사용이 빈약하다. 셋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회개와 헌신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 넷째,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사역의 이중적인 목적과 의미를 잊고 있다. 다섯째, 예배안의 적극적인 평신도 참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일상과 예배를 연결시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62] 예배의 여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예배를 경험한 안덕원은 전통과 현대, 형식미와 유연성, 거룩과 친밀은 공존이 가능하며 통합과 응용과 창조의 가능성이 예배에 활짝 열려 있는 블렌디드 예배를 주장한다:

> “블렌디드 워십(예배)은 역사적, 전통적, 현대적, 세계적인 예배 표현들을 융합하고 지역적, 세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성도들에게 연합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찬양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63]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새 예배서(개정판)*는 예배에 관해 이렇게 정의한다:

> “예배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의식적 응답이요, 인간 개개인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며 봉사다.”[64]

예배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청하고 받아 모시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예를 갖춰

---

[62]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8), 50–83.
[63] Ibid, 120.
[64] 신경하,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예배서* (서울: 도서출판 kmc, 2011), 14–27.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남을 가진 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세상으로 나아 가는 것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설교만 치중하여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에 맞게 교회가 변화하고 현상에 맞게 예배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으로 모이는 현 상황에 예배의 본질을 되돌아볼 시기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종교적 소통을 한다고, 그 곳이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 마치 내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습은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신앙인들이 예배를 주일 날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인식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몇몇의 신앙인은 심리적 평온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65] 반대로 온라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교 중심의 예배를 탈피하여, 시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의 장점을 가지고 공동체적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종식,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설교 중심적인 문제가 드러난 현실에, 예전과 같은

[65] 한승진, *코로나와 기독교* (서울: 부크크, 2020), 26-53.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배의 본질, 예배의 4 중 구조를 놓치는 현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본질, 예배의 4 중 구조를 명확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B. 포스트 코로나 예배 패러다임

종교는 영어 단어로 religion 이며 이 단어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는 언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비 본질에 해당되는 방법론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66] 이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한가지 형태로 지속 될 수 있으며, 온라인 설교는 현장 설교와 다르게 기획되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67]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연결시켜야 한다. 온라인은 새로운 길이고 이로 인해 새 부대(플랫폼)를 만들 때인 것이다.[68]

감리교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교회를 먼저 시행하고 있었던 만나교회 담임목사 김병삼은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하여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미디어교회를 시작하고, 미디어 동산이라는 교구도 만들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올 라인(on line+ off line = all line)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69]고 한다.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강점은 더 부각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참여자 J] *교구마다 예배 배달이라는 것을 해요. 이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문을 편집해서, 사역자들이 같이 찬양하고 이제 그 영상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예배 에요.*

---

[66]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5–16.
[67] 정창균, 이승진, and 권호,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수원: 설교자하우스, 2020), 72–74.
[68] 한승진, *코로나와 기독교*, 118.
[69] 김병삼 et al., *올라인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21), 29–30.

[연구 참여자 H] *회중으로 들어보니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목회자인 나조차도 회중으로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에 관한 개념에 온라인 패러다임과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이 있다.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정적이며 안전한 소통형 교회(a domestic, safe, interactive church)이며,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한다. 그리고 사바나 킴벌린(Savannah kimberlin)은"MZ 세대가 디지털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사역을 가장 지지하는 층"이라고 소개한다.[70] 사바나 킴벌린의 주장이라면 디지털에 거부감이 없는 MZ 세대 목회자는 포스트 코로나 예배 환경에 탁월한 목회자 세대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인 MZ 세대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획기적으로 집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남중은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기를 제안한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온라인 패러다임과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에 존재하는데, 이 패러다임들은 현장의 예배를 기술적으로 시청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예배 준비에 있어서 현장 예배만 집중하면 되는 에너지 보다 5 배에서 10 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71]

[연구 참여자 F] *예배 방송 영상을 받아서, 설교만 다른 교회처럼 해보려고, 설교만 한 3~40 분짜리 제목 넣고 편집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G] *업로드도 하고 현장 예배도 또 드리고 예배를 두 번 드렸어요 …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한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현장에서 진행됐던 2 부 활동 만들기 자료나 활동 자료들을 택배로 다 보냈었어요. 한 두 달치를 다 보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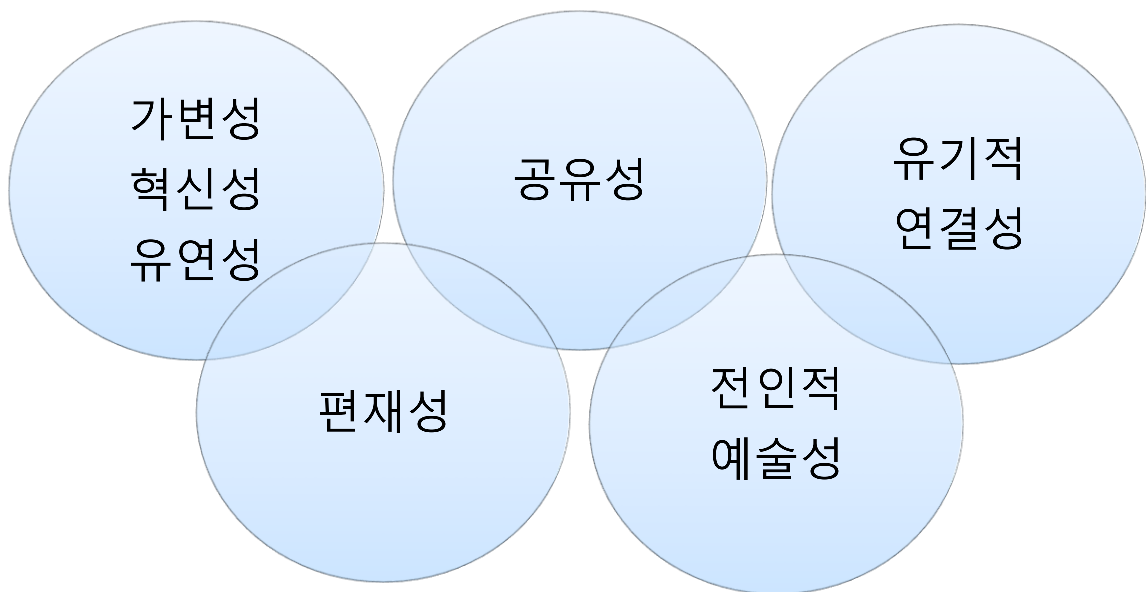
[70] 조성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 목회 전략,"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no. 9 (2021): 27-45.

[71]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96-102.

[연구 참여자 J] *불편했던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밴드(영상송출 프로그램)를 켤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남중은 현장 예배와 디지털 예배를 상호의존 관계로 보고 각각 두 가지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MZ 목회자들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특징이 있어서, 영상과 디지털에 관련된 일을 맡긴다. 이에 따른 MZ 세대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현장 예배가 가능한 이후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방향성은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으로 항상 온라인 예배를 열어 두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는 교회마다 시작되었지만, 교회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관한 숙제가 남겨져 있다.

김남중은 디지털 패러다임 예배의 특징을 다섯가지로 범주화 한다:



〈그림 1〉 디지털 패러다임 예배의 다섯 가지 특징[72]

[72]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05.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과 유사하게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예배의 특징을 1) 가변성, 혁신성, 유연성, 2) 공유성, 3) 유기적 연결성, 4) 편재성, 5)전인적 예술성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패러다임의 방향을 숨과 쉼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예배가 시청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 함께 대면하며 인격적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디지털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디지털 대면 예배라고 지칭하며, 참여자들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Zoom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김남중은 "디지털 대면 예배의 구조를 예배 4 중 구조 기반으로 [1. 처음에 (부르심&갱신), 2. 숨(말씀/설교), 3.쉼(성찬), 4. 새로운 시작/출발]"[73]을 제안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집례할 때 4 중 구조에 대한 고민보다, 설교와 예배 이후 2 부 순서(교육부 학생을 집례하는 경우)에 많은 고민을 쏟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유투브나 라이브 톡 등의 단방향의 예배 환경으로 집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 면담 중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예배는 비대면의 개념이고, 현장 예배는 대면의 개념이었던 것이었다. 줌으로 예배를 집례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대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고, 줌으로 예배 집례한 연구 참여자도 현장 예배로 복귀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당시 현장 예배 복귀의 상황이라,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보다 전보다 적어진 현장 예배 출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현장 예배로의 회복에 집중 될 경우, 코로나 변이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이 다시 시행된다면 그들에게 대안이 따로 없는 상태가 된다.

MZ 세대 목회자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를 경험한 신앙인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질병이 온라인

---

[73]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04–26.

예배로 이끌 수 있고, MZ 세대 목회자들은 이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디지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MZ 세대의 특징인 디지털 네이티브와 변화에 빠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MZ 세대 목회자들은 기성세대 목회자들보다 패러다임 전환이 보다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C. MZ 세대 목회자와 상호의존성

MZ 세대에 관한 이슈는 미디어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74] 교회 안의 MZ 세대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기사와 논문들이 있지만, MZ 세대 목회자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이영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의 사역 갈등 치유와 변혁: 근거 이론과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을 중심으로'는 90 년생 교육 전도사들에 관한 질적 연구이고, 90 년생 교육전도사들은 MZ 세대 목회자에 해당되기에, MZ 세대 목회자 논문으로 볼 수 있다. 90 년대생 전도사들이 성장해 온 시대는 평등 의식이 가장 높은 시대이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투명인간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90 년대생 전도사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그들은 사역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며, 학교와 교회 안의 간극의 차이가 있어서 그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필요하고,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환대가 필요하다[75]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단 차원에서 교육전도사들에 법적인 환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74] MZ 세대라고 검색했을 경우 국내 학술지 원문 dbpia 에서는 약 294 건이 검색되었고 그중 '플렉스 소비 트렌드'라는 mz 세대의 소비패턴을 읽는 전문잡지는 14,654 번의 이용이 되었다. 국내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Riss 에서는 약 1115 건이 검색 되었다. 국내 한국학술정보 kiss 에서는 117 건이 검색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October, 21, 2022, https://www-dbpia-co-kr.libproxy.hs.ac.kr/search/topSearch?searchOption=all&query=MZ%EC%84%B8%EB%8C%80.

[75] Youngjin Lee, "Healing and Transforming Ministry Conflicts Among Korean Methodist Seminarians: Grounded Theory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Approaches," 122–23.

온라인 예배로 인해 MZ 세대 목회자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현장사역과 더불어 온라인 사역을 추가로 얻게 되었고, 이들에게 더 많은 사역이 부과되었다. 또한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MZ 세대 목회자에게 온라인 예배의 기술적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MZ 세대 목회자들도 기성세대 목회자들에게 온라인 예배에서 도움을 받아 상호의존적일까? MZ 세대 목회자들은 기성세대 목회자들 보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기에 예배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기성세대와 교단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 세미나를 진행할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교단 기성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단선적인 세미나를 제공하였다. 교단 기성세대의 목회자들의 상황은 온라인 예배의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다. 세미나는 교단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온라인 예배의 기술적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구 참여자 B] *한 번은 G 교회에서 열린 줌 강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큰 도움은 없었어요. 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무슨 기계를 사야 된다, 기계를 사면 더 송출이 잘 된다' 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시골 목회에서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줄 때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감리교 본부와 각 연회는 MZ 세대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공감해주는 경청만으로도 기성세대와 MZ 세대 목회자들은 상호협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단내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미자립교회에 지원할 때에도 그들이 힘들 것이라는 추측 아래 시행되었다. 부목사인 연구 참여자는 제 3 자의 입장으로 교단,연회,지방 차원의 미자립교회 지원이 근본적 도움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 [연구 참여자 H]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성도들이 안 나오고 헌금이 안 걷히면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이나 연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을 한다고 목회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지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쉽지만 개 교회들이 목회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 참여자는 교단의 도움에 대해 물어볼 때에 '진급 중이 아니라 교단에 속하지도 않았는 걸요'라고 이야기했고, '준회원이 무슨 의견을 낼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발언이 교단에 반영되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다.

김혜란은 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유동적 정체성에 관여하는 방법은 경청이라고 주장한다:

"경청하기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며 화자(speaker)를 가정한다. 또한 경청하기는 청자(청중)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의미한다. … 우리가 경청할 때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능케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 안에 숨어 계실지도 모르고 동시에 말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경청은 젊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방시키는 작업이고, 해방의 작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지를 인식하게 된다."[76]

경청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경청은 심사숙고하는 의도적인 행위다. 성서적 지혜에서 나온 쉐마로서의 듣기(경청)는 상호의존 실천신학을 위한 교훈이다. 쉐마의 가르침은 불의와 억압 가운데서 신실함과 해방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겸손함을 인식하는 것이다.[77] 하지만 MZ 세대 목회자를 향한 공감적 대화가 부족하다. 부목사나 전도사들은 기성세대 담임 목회자의 관계에서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대교회, 농촌 고령층 담임목회자들은 지방, 연회, 교단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농촌 고령층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당연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방, 연회, 본부의

---

[76]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90.
[77] Ibid, 89.

생각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지만, 코로나 펜데믹 시기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지방, 연회, 본부에서 질문 해오는 경우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은 예배의 형식을 고수하며 '이 예배에 적응하세요'라고 회중들에게 강제성을 갖지 않는 모습이었다.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등의 물음을 이끌어서 성도들의 말을 경청했던 경험을 말해주었고, 함께 예배를 수정하고 집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도 말해주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전자기기와 어플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따로 시간을 내어 교사들에게 교육하는 모습도 있었다.

> [연구 참여자 C] *온라인 예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완벽에 가까운 시간은 성경학교 때였어요. 성경학교 일정이 길다 보니, 아이들을 계속 집중을 끌게 하기 위해 많이 준비했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핸드폰과 줌에 익숙한데, 선생님들은 다른 패러다임을 맞이한 것이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셔서 방송 교육을 매주 했던 것 같아요. 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계속했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날도 모여서 줌 교육을 계속했어요. 한 명씩 꼈다가 켜보세요. 줌 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왔어요.*

MZ 세대는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특성도 있어 타인의 삶과 취향을 존중하는 존재들이다. MZ 세대 목회자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존중하며 독단적 모습으로 진행하지 않는 상호의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MZ 세대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교단, 지방, 개교회에서 기성세대 목회자가 MZ 세대 목회자들과 소통하며 경청의 자리를 만든다면 상호의존성이 감리교안에 쉽게 자리잡을 것이다.

Chapter Ⅳ

제언 및 결론
(Suggestions and Conclusions)

온라인 예배에 관한 MZ 세대 목회자의 고민은 방법에 관한 것 보다, 예배라는 실제적인 고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Z 세대 목회자들이 회중으로 온라인 예배에 관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예배에 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 예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회중들이 예배를 시청하는 방식이다. 일방적 소통의 예배 형식이 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 방식은 회중들을 점점 예배와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에 나는 디지털 패러다임 성찬 예배를 제안한다.

A.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함(Remembering)과 기대함(Anticipating)으로서 기억함은 과거를 현재에 재현하며, 기대함은 현재에서 미래를 선취해보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유한성이 접속되는 시간이다.[78]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 희랍어 레이투르기아 (하나님의 일꾼)는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 사업을 의미한다. 곧 예배는 공적인 사건이며, 공동체적 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예배가 설교자를 중심으로 목회자 한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순기능이 더욱 명확히 표현되고 경험된다. 그래서 박해정은”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적

[78]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23–24.

노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79]

하나님과의 기억, 기대함, 접속인 예배가 공동체적인 노동(레이투르기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와 예배를 송출하는 예배 종사자들의 수고만 있다. 물론 회중들이 클릭을 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수고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레이투르기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해 예배 때 교회 안의 연합과 교제가 약해지는 상황이다. 식사교제(애찬)가 주된 교제의 장이 되었던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식사교제가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가 잠잠하여 다시 식사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시 유행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식사교제일 것이다. 집합 금지 명령이 있기 전에도 식사와 사적 예배 모임이 제한되었다.

레이투르기아가 회복되며, 교회 안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잃었는데 그 원인은 분열이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례전적 예배 공동체를 주장한다 "이 떡과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고전 11:26)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기념하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신앙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 신앙공동체를 증거하는 행위가 떡을 뗌(성찬)이었다.[80]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며 성찬 성례전적 공동체 식사로 교제를 했다. 건물이 없어 임대한

---

[79]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서울: 동연, 2021), 23-24.
[80] 박해정, "성례전적 예배공동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 *신학과세계* no.100 (2021): 240.

장소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식사를 했다. 공동체는 설교와 성경 읽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 함께 할 즐거운 식사를 위해 장시간 모였다.[81] 초대교회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의 첫 번째 변증문에서 성찬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현대교회와 다른 성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그리고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한 장소에서 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의 언행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낭독됩니다.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면 그 집회의 인도자는 강론을 통하여 이러한 고귀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서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와 물이 각자에게 분배되고 부제들은 결석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82]

성만찬은 그 의미가 다양하다. 구원의 신비, 예수의 희생에 대한 기억, 희생제사, 감사, 종말론적 잔치, 즐거운 공동식사, 해방과 사회 정의의 성만찬으로 7 가지 의미를 예배학자 호톤 데이비스(Horton Davies)가 정리하였다.[83] 웨슬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찬송들(Hymns on the Lord's Supper)*를 기술하며 성찬 신학을 담고 있다. 첫째, 주님께서 성찬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독생자의 몸과 피를 나타내신다. 웨슬리 형제가 성찬으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이며,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성찬이다. 셋째,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양식이며, 가끔씩 받는 것이 아닌 규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성찬이다. 넷째,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보증물로 먹는 잔치이다. 종말론적 식사가 성찬이다. 다섯째, 성찬 참여자들을 연합시키는 식탁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어 성도 상호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이다.[84]

---

[81] 이정재, "코로나 19 이후 : 교리적 예배와 1-2 세기 예수 공동체의 예배," *신학사상* no.191 (2020), 150-51.

[82] 조기연, "성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no.76 (2021), 14-15.

[83] Ibid, 22.

[84] Ibid, 31-34.

웨슬리는 성찬에 핑계대며 참여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반박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찬 받기를 요청하였다:

> 첫째, '나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핑계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성찬은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찬을 자주할 수 없다'는 핑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나오라고 하신다. 셋째, '자주 성만찬을 수행하다보면 성만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질 것이다'는 핑계에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에게 너무 내 말을 자주 순종하면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신앙적 경외심을 시간이 지날수록 굳건해지고, 증가된다. 넷째, '성례전을 오래도록 계속 해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에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성찬을 통해 강건해질 것이다. 다섯째, '교회의 장정이 일 년에 세 번 성만찬에 참여하라고 정하였다'는 핑계에 교회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고 매주 그리고 모든 기념일에 수행해야 한다.[85]

예수가 시행한 성찬, 초대교회의 성찬, 웨슬리의 성찬은 신앙공동체에 가장 요소이며 은총의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구성원들과 목회자들은 성만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현실이다.[86] 송훈호는 "한국교회는 성찬 성례전에 대한 신학적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시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성찬 성례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사랑, 위로, 겸손, 용서, 연대 돌봄, 소통, 환대 등의 주제가 실현되는 연합의 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7]

우리의 구원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달려있다.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말씀이다. 그렇기에 복음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다. 그리고 성례는 우리의 감각에 각인을

---

[85] 이세형,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 *한국개혁신학* vol.32, (2011): 83-85.

[86] 조기연, "성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22.

[87] 송훈호, "성찬 성례전적 공동체 식사를 통한 연합 방안,"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no.5 (2022): 54-61.

시키게 된다. 말씀으로 듣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회중에게 들어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례인 성찬은 복음의 감격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인 것이다.[88]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며(성찬), 자신의 삶에 모시면,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됨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수 있게 된다. 또한 성찬이라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흠향 되어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이 증거 된다.[89] 나형석은 설교와 성찬에 관해 이와 같이 설명한다:

> "설교는 마치 광고와 같습니다. 학교 연구실 문에 붙여진 광고용 메뉴판을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골 순두부. 맛있고 저렴하며 영양만점의 시골 순두부' 네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대로 시킵니다. 순두부가 사진의 모습과 비슷한 지 봅니다. 실제로 맛이 설명되고 증거된 내용과 같은 지 봅니다. 그리고 맛있게 배불리 먹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입을 통해 온몸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시간, 공간, 함께 있던 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속으로 배어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일상과는 다른 질적 시간 속으로 유월해 듭니다. 설교는 순두부의 재료, 맛, 유익, 모양, 예상되는 유익들을 설명해주는 광고용 메뉴판과 같습니다. 이 메뉴판의 증거와 선포를 듣고 마음이 동한 자는 그곳에 가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세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삶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성찬). 설교는 맛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가서 먹었을 경우 우리가 들게 될 세계를 (맛과 힘) 설명해줍니다. 성찬에서는 증거된 것의 세계를 먹고 맛보고 즐깁니다. 음식, 저 힘의 은총의 방편 말입니다. 설교의 언어는 가리킵니다. 성찬의 식탁에서는 언어가 가리키던 것을 먹습니다. 설교와 성찬은 따라서 언어와 행위, 약속과 약속의 맛봄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90]

오석진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Z 세대를 위한 성찬 이해 및 실천적 예배모델 연구"에서 Z 세대를 담당하는 신학생 전도사들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오락적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도사들은 자극을 계속 추구하고 세속적 요소를 예배에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세대인 Z 세대에게 예배의 전통 중에 하나인

---

[88] 윤형철, *윤형철교수의 조직신학꿀팁* (서울: 홍성사, 2021), 205-206.
[89] 나형석, *예배학교실*, (서울: 좋은땅, 2012), 133.
[90] Ibid, 134.

성찬은 그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참신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Z 세대들이 성찬을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91] Z 세대를 담당하는 전도사들은 MZ 세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이 되면서 MZ 세대 목회자들은 예배 신학적인 고민보다 영상과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들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설교였다.

온라인 예배가 설교에 치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감안할 때,[92] 설교 중심의 예배 탈피와 공동체적 예배 향상, 예배의 전통 회복을 위한 성찬을 제시해본다. 하지만 온라인 성찬 예배에 관하여 교회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견해, 현장에서 모여서 성찬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견해, 온라인 성찬은 불가능 하지만 대안으로 애찬(love feast)을 제시한다. 세 번째 견해, 온라인 성찬을 찬성한다. 이에 대한 진행방법도 교회에서 일회용 성찬도구를 미리 나누어 주고 진행하는 것과 회중이 각자 준비하여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세 가지 온라인 성찬에 관한 견해[93]가 있다. 특별히 두 번째를 주장한 미국연합감리교의 주장에 박해정은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체현(embodiment)은 수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94] 또한 내가 청소년들의 담당 전도사로 있을 때에 대학원에서 웨슬리의 성찬의 은총을 배웠고, 함께 은혜의 수단 성찬을 하고 싶었지만, 담당 목사의 성찬에 대한 견해가

---

[91] 오석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Z 세대를 위한 성찬 이해 및 실천적 예배모델 연구” (Ph.D,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135.

[92] 김대혁은 ‘온라인 영상설교가 설교의 권위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에 예배와 설교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경험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영상 설교는 소비주의적, 개인주의적, 회중을 야기 시킨다’라고 말하였다. 김대혁, “포스트코로나(Post-Covid 19) 시대 속 온라인 영상 설교의 한계점 인식과 설교학적 함의,” *신학지남* vol. 88, no. 1 (2021): 172-73.

[93] 이상규, 노영상, and 이상구, eds., *교회통찰, 코로나 언택트 뉴노멀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320.

[94] 박해정,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203.

다르고, 성찬을 집례할 수 없는 전도사이기에 성찬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시간을 가졌지만, 성찬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나는 애찬이 성찬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주장인 온라인 성찬을 찬성할 때에도 성찬을 생중계 예배로 단방향적 성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고자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를 제안한다.

김남중은 "교회는 최소한 6 개월에서 1 년까지 회중들과 디지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대면 예배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예배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95]고 주장한다. 이에 각 교회가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를 구상하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첫 번째, 디지털 예배의 시간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디지털 예배의 구현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 고령층 신앙인 중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한 가르침으로 고령층 신앙인에게 전자기기를 다루는 부담감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96] 나는 코로나로 인해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없어졌고, 성도들이 다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Z 세대 목회자들이 오후 예배 혹은 또 다른 모임 시간에 디지털 대면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디지털 대면 예배에 적응이 되고

---

[95]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51–52.

[96] 내가 속한 홍도교회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없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해도 읽지 않은 메시지가 100 개 이상 넘어가는 고령층 신앙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달 동안 카카오톡의 한 기능을 꾸준히 가르쳐주었더니 문제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령층 신앙인의 자녀는 '엄마 교회 다니니까 좋다 치매도 안 걸리겠다'라고 말하며 긍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형식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말씀을 전한다. 세 번째, 디지털 대면 성찬을 진행한다. 대면 성찬은 단방향적인 예배를 양방향의 예배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가 실현될 것이며, 교회 안의 연합과 교제를 실현시킬 것이다. 매주 교회에서 성찬도구를 나눠주는 것보다 개인이 성찬에 필요한 빵과 잔을 준비하여 레이투르기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파송한다.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삶이 예배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주는 역할로 파송한다. 만약 성찬 후 준비한 빵이 남았다면 성찬 이후 이웃이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누어 주도록 한다.[97]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겐 또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남중이 말했던 디지털 대면 예배의 4 중 구조에 의하여 다시 정리를 한다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디지털 대면 예배의 4 중 구조와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

디지털 대면 예배 4 중 구조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1. 한 처음에(부르심&갱신)	Zoom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디지털 대면 예배로 이끈다.
2. 숨(말씀/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맞춰진 설교와 말씀을 전한다.
3. 쉼(성찬)	설교와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성찬에 레이투르기아가 실현되며 연합과 교제를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 분병 후 진행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지난날의 삶을 나누고, 성찬 때에 느낀 감정과 지난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대그룹으로 모여 자원하는 이가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를 나눈다.
4. 새로운 시작/출발(파송)	주의 몸을 받은 성찬 참여자는 다음 예배까지 주와 동행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한다.

[97] 나형석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로서 이 떡을 가져다 주는 것도 목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나형석, *예배학교실*, 150.

	넉넉히 준비한 음식이 남았을 경우 교회에 낙심자, 혹은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나누며 그 사람에게 한 처음 (부르심&갱신)을 시작 하게 한다.

코로나 이전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파송을 경험했다면,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GPS(God's Positioning System)[98]기능을 할 것이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예배가 삶,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디지털 대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99]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중 세 번째 쉼 부분의 성찬 예식[100]과 네 번째 새로운 시작/출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101]

〈표 9〉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성찬과 파송 예식

순서	내용
초청의 말씀	(줌의 화면 공유 기능으로 모든 예식을 함께 읽는다.) (집례자는 양손을 펼치며 초청의 말씀을 한다.) 집례자 :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이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모인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드높이십시오. 회 중 :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98] 박해정은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인들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안내 받듯, 예배도 GPS 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35-36.

[99]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133.

[100] 예식(나눔을 제외한 순서)은 감리교 *새예배서*의 주일 성찬 예문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01] 감리교의 새예배서 주일 성찬 예문을 기초하여 박해정 교수가 온라인 성찬식 예문을 작성한 것(예문 2 Zoom 을 활용한 소통방식의 온라인 성찬)을 참고하였다. 심자득, "송구영신 온라인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당뉴스* , February 15, 2023,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0.

	집례자 : 주님께 감사합시다. 회　중 :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성찬 기도	집례자 : 다함께 기도합시다. 다같이 :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제정사	집례자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집례자는 떡을 두손으로 든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때 떡을 두손으로 뗀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떡을 내려 놓는다.) 집례자 :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잔을 두손으로 든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잔을 내려 놓는다.)
성령 임재의 기도	집례자 : (떡과 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 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 아멘.
분병	집례자 :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호명하며 분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준비 되어 있는 떡(빵)과 잔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000 성도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과 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나눔	(집례자 포함 6 인 이상이 되는 경우 집례자 혹은 줌 프로그램 도움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질문에 따른 나눔을 진행한다.[102]) 질문 1 : 지난 주 나의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묵상해 봅니다. 질문 2 : 지난 주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 용서 받아야 할 행동이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질문 3 : 지난 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손길로 도와 주신 일이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진행자 : 잠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질문 4 :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1-3 의 질문을 진행자가 묻고, 소그룹 원은 약 1 분씩 묵상기도를 하고, 함께 1 분정도 기도 한 후 질문 4 도 1 분정도로 나눈다. 총 5 분의 진행시간 후 다시 대 그룹으로 모인다.) 집례자 : 소그룹에서 나눈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하는 자가 자원하여 나눔을 한다 1-2 명.) 집례자 :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삶을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함께 : 우리의 삶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과 출발 (파송)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회　중 :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 주변의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회　중 : 나에게 사랑을 먼저 나누시고 내 주변인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같이 : (3 번 반복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102] 감리교의 속회와 같이 소그룹이 있다면 소그룹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에 제시한 예배문 중 나눔의 기능은 디지털 대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현장에서 예배 중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의자를 움직이는 상황은 예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줌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통해 예배 중 보다 쉽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성찬 중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제시한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순서로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성찬예배를 집례하였다. 약 4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석하였고, 현장에서 성찬예배 집례 경험이 있는 담임목회자 3 명과 성찬을 집례 경험이 없는 수련전도사(목회자) 1 명이 함께 예배를 하였다. 줌으로 만났고, 미리 빵과 포도주(또는 쥬스)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심층면접 인터뷰를 줌으로 진행했던 연구 참여자들이 있고, 줌 사용에 거부감이 없어 원활하게 줌 사전 준비가 끝났다. 빵과 잔이 준비되었는지 묻는 과정에서 한 연구 참여자는 직접 집례하는 도자기에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다른 연구 참여자는 10 여분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10 여분의 부재 동안 빵과 잔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나는 성찬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10 분 후 얼굴을 비친 연구 참여자는 '교회에 손님이 갑자기 왔다'며 미안함을 표시했고,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존재하지 못해, 디지털 대면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경험하였다.

예배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줌 화면 공유 기능으로 함께 예문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였다. 가능한 음소거를 하지 말고 함께 예문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성찬 제정사를 진행할 때에는 줌 기능 중 가상 배경을 활용하다 보니 빵이 배경으로 잡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분병 때에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으라고 집례하였다. 본인이 먹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고, 빵과 잔을 보여주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묵상과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 예배 참여한 사람은 5 명이어서 소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끼리 관계가 없었음에도, 기도하며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주었고, 감사기도와 새로운 시작 출발(파송)까지 잘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바로 디지털 성찬 대면 예배에 참석한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A] *항상 많은 대중 안에서 성찬 키트로 빵과 잔을 동시에 먹는 성찬만 경험하였는데, 분병할 때 제 이름이 호명되고 빵과 잔을 하나씩 먹을 때, 저와 하나님이 오롯이 집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성찬식이 세레머니의 느낌, 예식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B] *한 명 한 명 믿음의 고백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 마실 때 외로움이 해소되었어요.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성찬에서 한사람의 고백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고백하는 것(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됨이 느껴졌고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F] *나눔 할 때, 한 줄 또는 한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4-5 명이 성만찬에 참여한 순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저희 교회에서 사실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고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인원도 많지 않아서 고백하는 부분과 나눔하는 부분을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찬이 더 의미있게 성찰된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와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F] *배경음악(BGM)이 있어서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성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문을 읽었는데, 다같이 라는 공동체성이 있지만, 소리가 겹쳐서, 집중이 흐려졌어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프리젠테이션에 적어 놓고, 다같이 혹은 회중이라고 적힌 부분에 한 명씩 이름을 적어, 적힌 사람만 마이크를 켜서 들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로도 남아서 대화를 나누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줌으로 하는 진행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는 메시지로 솔직한 고백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사실 교회에 포도주 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빵만 준비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커피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식사 자리의 포도주가 있었다면 지금의*

커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의 확장으로 예수님 당시 식사 시간이 성만찬으로 진행되었다면, 내가 지금 먹는 행위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예배의 성찬 경험만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그들의 레이투르기아와 공동체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를 통하여서 연구 참여자들이 성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처음 만난 연구 참여자들이 예배 후 친밀하게 대화 나누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B. 디지털 대면 소금 언약 예배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를 MZ 세대 목회자들에게 제안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된다. 부교역자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이들은 성찬을 집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MZ 세대 목회자들 중 전도사들이 교육부를 맡고 있는 동안 그들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크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103] 이에 나는 학교 종강 채플에서 경험한 소금언약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한다.[104]

성찬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

[103] 나형석은 ‘성찬 집례는 목사님만 할 수 있나요’라는 답변에 반드시 성찬 집례를 성직에 묶어 둘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과 성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집례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답하며, 감리회는 목사에게 말씀과 성례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마무리 짓는다. 나형석, *예배학 교실*, 158-60.

[104] 협성신학대학 예배센터 주관으로 2017 년 1 학기 종강 예배를 회중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예배학 전창희 교수가 예배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예배를 디자인한 이 소금언약식 예배였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홍도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있는 동안 성찬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불편함이 있었다. 감리교에서는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정의한다.[105] 그렇기에 성찬을 위해 주변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피해 요청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회중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성찬의 은혜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과 나누고 싶고, 은총의 수단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교회의 목회자에게 부탁해야 해서, 성찬을 포기했던 적이 많았다. 이에 소금언약식은 성찬과 같은 수단으로 볼 수 없지만, 집례자가 나누어 주고, 회중이 받아먹는 의미로 성찬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채플에서는 교수이며 목회자가 소금언약예배를 집례하였다. 하지만 성찬을 집례할 수 없는 목회자(전도사)도 성례가 아닌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회중들도 레이투르기아와 연합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음은 당시 예배 순서 프레젠테이션(PPT)이다. 당시 현장 예배로 진행하였지만, 줌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소금언약 예배이다.

소금언약은 민수기 18 장 19 절과 마태복음 5 장 13 절, 마가복음 9 장 49-50 절을 근거로 예배를 디자인하였다. 각기 소금에 관한 구절은 아래와 같다.

>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막 9:49-50)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05] 감리회소개, "교역자와 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February 15, 2023, https://kmc.or.kr/about-kmc/pastor-layman.

〈그림 2〉 소금언약



민수기의 내용은 제사장직인 아론에 관한 소금언약이다. 신학대학교 학생들 모두 주의 전을 섬기는 전도사들이었기에 이 언약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인제사장의 맥락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소금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중이 평신도 혹은 교육부인 것을 감안해 초점을 마태복음 5 장과 마가복음 9 장에 초점을 맞추어도 된다.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중 세 번째 쉼 부분의 소금언약 예식[106]과 네 번째 새로운 시작/출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107]

〈표 10〉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소금언약과 파송 예식

순서	내용
초청의 말씀	(줌 화면공유 기능으로 모든 예식을 함께 읽는다.) (집례자는 양손을 펼치며 초청의 말씀을 한다.) 집례자 :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은 소금 언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모인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집례자 : 주님께 감사합시다. 회　중 :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소금언약을 위한 기도	집례자 : 다함께 기도합시다. 다같이 :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빛과 삶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당신의 위대한 행위를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충성스러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론에게 소금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108] 이제 우리도 삶에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금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증거[109]	집례자 : 민수기 18 장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집례자 :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6] 예식(나눔을 제외한 순서)은 감리교 *새예배서*의 주일 성찬 예문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07] 앞의 성찬 예문을 참고하였다. 심자득, “송구영신 온라인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8] 민수기 18 장을 생략하기 위해선 이 부분은 생략해야 된다.

[109] 만인 제사장설 교육이 되어, 참여하는 회중이 제사장의 직무개념을 목회자를 넘어선 자신도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민수기 18 장을 진행해도 괜찮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마태복음 5 장과 마가복음 9 장만 하여도 괜찮다.

	회　중 : 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집례자 :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그리하면 나에게 가져오는 성물의 분깃을 너희에게 돌리리라. 집례자 : 이 말씀 뒤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한 몫을 지정해주시고, 그 몫의 분별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언급한 너와 네 자손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맺는 소금언약 이니라. 집례자 : 마태복음 5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회　중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이니라. 집례자 :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처럼 어둡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회　중 :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소금이 되셨습니다. 집례자 :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제자,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함께 :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온 우주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차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집례자 :마가복음 9 장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집례자 : 소금을 불로 연단하듯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불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　중 :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하라. 집례자 :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소금으로 언약을 맺고 축복하신 것처럼. 회　중 : 우리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또한 세상에서 성령의 불로 연단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임재의 기도	집례자 : (집례자는 소금위에 살짝 손을 떨어뜨려 얹는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소금 위에 임하셔서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소금을 먹음으로 언약을 기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함께 : 아멘.

소금언약	집례자 :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오늘 소금 언약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와 소금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집례자 : 주님의 귀한 OOO 성도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금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나눔	(집례자 포함 6 인 이상이 되는 경우 집례자 혹은 줌 프로그램 도움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질문에 따른 나눔을 진행한다.) 질문 1 : 지난 주 나의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묵상 해봅니다. 질문 2 : 지난 주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 용서 받아야 할 행동이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질문 3 : 지난 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도와 주신 일이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진행자 : 잠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질문 4 :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1-3 의 질문을 진행자가 묻고, 소그룹 원은 약 1 분씩 묵상기도를 하고, 함께 1 분정도 기도 한 후 질문 4 도 1 분 정도로 나눈다. 총 5 분의 진행시간 후 다시 대그룹으로 모인다.) 집례자 : 소그룹에서 나눈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하는 자가 자원하여 나눔을 한다. 1-2 명) 집례자 :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삶을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함께 : 우리의 삶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소금언약 후 감사기도	다같이 : 이 땅의 소망이 되는 OO 교회에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과 출발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회　중 : 나와 약속하시고 함께하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례자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인 생명과 화목을 명하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 주변의 이들에게 생명과 화목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회　중 : 나에게 생명과 화목을 명령하시고 내 주변인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같이 : (3 번 반복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금언약 예배의 장점은 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녀노소 혹은 처음 이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소금을 입에 넣는 것은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MZ 목회자 중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들이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를 능동적으로 집례한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학교와 목사가 없어서 성찬이 끊긴 교회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에 제시한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순서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소금언약 예배를 진행하였다. 4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석하였고, 학교에서 소금언약 예배 집례할 때 경험해 본 연구 참여자가 있었고, 3 명의 연구 참여자는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도사 3 명과 목사 1 명이었다. 줌으로 진행했고, 미리 소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모두 심층면접 인터뷰를 줌으로 진행했던 연구 참여자들이기에 원활하게 줌 사전 준비가 끝났다.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를 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묵상과 나눔의 시간에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눔이 이루어졌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도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 D] *소금언약 예배를 드려보니 담임전도사로 있을 때, 성찬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애찬식을 하였는데 소금언약식 안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가 좋아서, 담임전도사가 집례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찬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소금언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부활절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주에 소금언약을 같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J] *앞서 말한 애찬에 대한 경험이 현장 예배에서 있었는데, 소금을 준비하듯 빵을 준비해서 줌으로 애찬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영상 틀고 예배하는 것보다 Zoom 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하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I]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소금언약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예문 읽고, 소금이 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줌을 통해서 경험해보니 소금 언약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도 교육부서에서 애찬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수련회 같은 시간에 소금언약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C 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준다고 하였고,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안에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을 제시해주었다.

[연구 참여자 C] *소금은 큰 알갱이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언약식을 할 때 찬양 배경 음악(BGM)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축복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는 시간(축복찬양, 중보기도)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를 처음 경험하고, 처음보는 사람들임에도, 연구참여자들의 연합과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찬을 집례할 수 없어서 애찬을 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말이 나의 경험과 맞물리며, 성찬 대안에 대한 논의, 애찬에 대한 논의도 교단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교회학교의 인원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학교의 인원 하락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다. 교회학교의 인원 하락을 멈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목회자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 혹은 전도사들일 것이다. 앞서 오석진이 Z 세대(교회학교)에게 성찬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MZ 세대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도사들은 기독교 전통과 교단의 법에 따라 성찬을 집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안에서 레이투르기아와 교회 안의 연합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성인이 될 것이다. 성인이 되어도 내 경험에 따르면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부서를 옮길 때 많은 신앙인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마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와 연합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MZ 세대 목회자 중 담임전도사로 있는 교회와 신앙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성찬과 흡사한 소금언약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찬 안에서 레이투르기아와 교회 안의 연합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온라인 환경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소금언약 예배와 성찬만이 교회 예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예배에서 소금 대신 다른 매개체로도 레이투르기아와 연합 교제를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 또한 디지털 대면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꼭 성찬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향한 회중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응답과 반응을 목적으로 한 예배가 디자인되고 실행된다면, 교회 예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C. 감리교 안의 신학 포럼 및 MZ세대 목회자와 상호의존적 원형식탁

감리교에 속한 MZ 세대 목회자와 심층면담을 하면서 펜데믹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단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도움이었다,' '지방과 연회에 속한 교회에 우리 교회가 도움을 준 적이 있다'등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교단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생각조자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아마 교단에 대한 바램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연구 참여자들 몇몇은 교단에 속하기 전이고, 학업 중에 있는 목회자(전도사)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단에 속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질문하였을 때, 동기, 동료들 과의 대화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에 관해 고민하고 있던 것은 신학이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프로그램적인 것은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고 교단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장비 다루는 법, 실시간 방송에서 뭐가 중요한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사실 학교나 교단이 아니어도 정보를 얻을 곳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 장비나 예배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교단은 대부분 장비와 온라인 예배 형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내가 속한 연회도 실시간 예배하는 프로그램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담임목회자로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그 강의가 본인들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D] *교단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 세미나 말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좀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구 참여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배의 방법,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듣고, 신학적 정립을 원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단 내에서 신학적, 정치적, 논리적 온라인 예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H]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단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확한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좀 더 성도들이 납득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감리교단에서 감독회장이 펜데믹의 상황에서 감리교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리교단에 속한, 연회에 속한 이들이 신학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신학포럼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2020 년 7 월 충청연회는 8 명의 교수 및 강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경기연회와 동부연회도 이와 같은 코로나를 보내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1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진행한 충청연회의 신학 세미나를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사회자, 강사만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질의 응답의 시간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MZ 목회자들을 볼 수 없었고,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질의응답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미나 시기 아직 정부의 집한 제한이 있던 시기에 MZ 목회자들이 그곳에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본다. 이번 상황을 통하여 MZ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MZ 목회자들도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 신학과 목회현장의 적용이 교단과 연회에 이뤄지길 제안해본다.

이것만 아니라 MZ 세대의 제안이 교단 안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등한 대화의 장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원형식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그들만의 식탁문화가 존재한다. 식탁은 사각형 모양의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사각형 식탁을 앉을 때,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문화가 존재한다. 누가복음 14 장 8 절~10 절에 따르면 높은 자리(헬라어 프로토클리시안-첫자리, 수석, 상석) 낮은 자리(헬라어 에스카톤-끝자리,말석,맨 뒤의 구석 자리)가 존재한다. 예수가 말한 식탁은 트리클리니움(세 개의 침상이 있는 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라틴어) 식탁으로 사각형 식탁에 3 개의 침대를 놓고 왼쪽 팔꿈치를 쿠션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먹었다. 3 개의 침대를 놓았을 때 'ㄷ' 형태의 식탁이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으로 여겨졌다.[111] 트리클리니움 식탁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식이다.

---

[110] 김형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 세미나 봇물," *웨슬리타임즈*, February, 07, 2023,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

[111] 신세계역성경, "만찬에서의 윗자리," *워치 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22, March, 2023, https://wol.jw.org/ko/wol/d/r8/lp-ko/1001072123.

〈그림 3〉 트리클리니움 식탁



그러나 원형 식탁은 모두가 자신의 왼쪽에 위치할 수 있고,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 시작과 끝,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할 수 없는 형태인 것이다. 예수의 말에 따르면 낮은 자리에 위치하여 겸손하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에 따르면 온전한 자기(a whole self)는 관계성을 통해서만 획득하는 것이기에,[112] 누가 낮거나 높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원형식탁이라는 상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들인 MZ 목회자들이 온라인 전선에 뛰어든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의 도움의 전유물일 뿐 MZ 목회자들과 소통이 되었을까?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동등한 입장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113] 개교회를 넘어 교단으로 발전하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가 동등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목회자 안에도 격차가 벌어진다. 동등한 입장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에 존 맥클루(John McClur)가 말한 원형

112 HyeRan Kim-Cragg,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33.
113 이승우, "설교에서의 청중참여를 위한 실천적 제언," *신학논단*, vol.97 (2019): 165-66.

식탁의 대화를 제안한다. 원형 식탁의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114] 함돈균에 따르면 원탁은 예수가 바로 평등한 식탁인 원탁에서 제자들과 대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원형 식탁에는 이렇다 할 음식 방향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상석'에 가까이 놓인 음식,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하여 놓은 음식이란 게 없다. 이 무심한 배치의 의미는 '직사각형 제사상' 음식 배치와 비교하면 뚜렷하다. 제사상에 오른 음식에는 서열과 방향이 있다. 위아래 왼편 오른편에 따라 할아버지 밥과 할머니 밥에 순서가 있으며, 고조할아버지 밥과 증조할아버지 밥에 서열이 있다. 빨간 과일과 하얀 과일이 놓이는 방향이 다르며, 육지 음식과 바다 음식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 제사상에서는 음식 위치가 곧 그 음식의 '(사회적)의미'다. '격식 있는'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사상을 물리고서 남자가 '먼저' 식사한 '후에' 여자가 식사했다. 둥근 식탁은 방향과 위계와 서열이 없는 테이블이다. 평등한 식탁이다”[115]

감리교단 안에, 연회 안에, 지방 안에 MZ 목회자가 소속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들은 단순히 이용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아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선배 목회자들을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 MZ 목회자들과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상호의존의 관계이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 조언도 가능하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말할 수도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인 MZ 목회자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 집례에 큰 차질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의견을 냈다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의견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것이다.[116] 이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리교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원형 식탁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길 제안해본다.

---

[114] Ibid, 161.

[115] 함돈균, “[사물의철학] 원탁-평등한 식탁,” *매일경제*, February, 07, 2023,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5834709.

[116] 감리교에선 준회원 전도사에서 정회원 목사가 되는 진급 과정에서 과정위원과 진급위원들 10 명가량이 한 명의 진급자를 면담하는 시간이 있다. 이때 잘못 말하면 진급이 누락된다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들을 통해 많이 들었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할 때, 나에게 경험된 것은 자주 이러한 모임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연구 참여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약속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참여해준 것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연구참여자들도 '좋은 시간이었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생각이 정리되는 인터뷰였다'고 말해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인 MZ 목회자들은 줌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줌을 통하여서 원형 식탁의 자리가 감리교 본부, 연회, 지방에 마련된다면, MZ 목회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11〉 감리교 상호의존적 원형 식탁

순서와 방식	내용	비고
주제선정	각 기관마다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정리한다.	각 기관은 본부, 연회, 지방을 말한다. (개교회는 담임목사가 부목사 혹은 전도사에게 적용해도 된다.)
참석자 신청	아이디어와 논의를 인터넷 설문지(Google Forms[117])로 기관에 해당되는 목회자에게 전달한다. (MZ 세대 목회자만 해당되도 된다.)	줌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설문지를 통해 찾는다. 추후 모임시간을 공지한다.
원형 식탁	줌에 참석하여 논의와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아직 낯설어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고,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목회자도 있을 것이다. 이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 목회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 원형 식탁	이러한 논의와 질문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의 수장 감리사, 연회의 수장 감독, 본부의 수장 감독회장과

[117]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폼은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설문지로,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이미지 및 동영상 첨부 등 다양하게 작성하여 답변자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설문지이다. 설문지 기간이 끝나면 답변을 종합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이다.

		MZ 세대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MZ 세대 목회자들은 참여할 것이다.

〈표 11〉와 같은 원형 식탁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논의된 내용이 지방 안에, 연회 안에, 감리교 전체 안에, 실행된다면, MZ 세대 목회자들은 더 많이 참여할 것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감리교 원형식탁의 자리가 활발히 진행되어, 목회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정립되어, MZ 목회자들은 선배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선배 목회자들은 MZ 목회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 생각한다.

D. 결론

나는 처음 내가 담임하고 있는 홍도교회 목회 상황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싶었다. 어려움이 있는 학생과 그 가족을 주제로 질적연구를 고민하였고, 목회자의 잦은 임지 이동을 경험하는 홍도교회 성도들을 주제로 질적연구를 고민하였다. 그 고민은 홍도교회에 예배로 이어졌고, 질적연구가 시작되었다. 홍도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부족하여 신앙공동체는 경험하는 바가 적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성이 결여되는 것도 목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 상황은 나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이 되었고, 신학적 정리를 하지 못하고, 홍도교회의 온라인 예배 집례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같은 세대인 MZ 세대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힘들다는 말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주제를 말하게 되면 고령 신앙공동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홍도교회 신앙공동체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 도구를 부러워하고, 홍도교회의 현실에 낙심하고 있었다.

이때, 나와 같은 MZ 세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할 때, 코로나 상황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MZ 목회자들은 온라인에 능숙하지만 고령 신앙공동체라던지, 성도가 없는 목회적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기성 세대 목회자과 갈등을 겪고, 억압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의 목회현장과 MZ 세대 목회자들을 향한 고민은 뿌리질문[118]으로 변화되어 연구가 시작 되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홍도교회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 온라인 예배에 관한 상황도, 참고 견디어 내는 시간으로 흘렀을 것이고, MZ 세대 목회자들과 대화할때에도 힘들다라는 말만 할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부각시키는 코로나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질적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배움이 되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억압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나의 부족함으로 발생하는 홍도교회의 일들에서 나 스스로 억압하고 있었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리고 억압과 갈등을 희생이라는 단어에 포장한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MZ 세대 목회자들이 겪는 목회상황이 과정이라는 단어속에 억압과 갈등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작성하며, 연구참여자를 만나 인터뷰 하는 중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MZ 세대 목회자라면 온라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아예

---

[118] 강남순은 자연스러운 것은 없고. 탈자연화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뿌리질문을 통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것이 배움이라고 하였다. "Gender-related Conflicts,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lecture, Doctor of Ministr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an 5, 2021).

부정하는 MZ 세대 목회자도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었다. 나의 생각, 경험과 반대로 고령층 신앙공동체에서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터뷰하며 나는 홍도교회에 핸드폰 카카오톡을 활용한 신앙공동체의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핸드폰을 배우고 있었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듯 질적연구 프로젝트는 나의 굳어 있는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었다. 인터뷰만으로도 나의 생각과 목회에 큰 도움이 됨을 경험했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록 치유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제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고, 인터뷰를 포함하는 질적연구가 목회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추측했던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의 과정, 목회의 과정인 것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제 때문이었다. 온라인에서 일방적 송출 방식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를 더 요청했고, 양방향 송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들과의 소통과 교제에 불편함을 토로하며 현장 예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온라인 성찬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회자는 없었다. 성찬이 주는 레이투르기아와 연합 교제의 측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 성찬 집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까?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의 패러다임 전환과 예배 안의 레이투르기아, 교제, 연합이 교회마다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와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는 예배를 향한 회중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응답과 반응을 목적으로

삶은 예배이다. 이와 같은 목적의 예배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국교회 예배에 공동체성이 회복되길 바라며, 감리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삶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해 본다.

아직 한국 사회는 나이가 적으면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견디지 못하면 끈기와 열정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구조이다. 한국 감리교 목회자 상황은 한국사회보다 더욱 희생을 강조하고, 견디지 못하면 끈기, 열정, 사명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에 나의 프로젝트가 감리교 MZ 세대 목회자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감리교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또한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MZ 세대 목회자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관해 MZ 세대 목회자를 넘어 기성세대 목회자, 교회 신앙공동체, 청년, 청소년, 아동까지도 무엇을 경험했는지 연구한다면 보다 풍성한 온라인 예배에 관한 성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질적연구를 통해 풍부한 예배에 관한 정보화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목회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클레아몬트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옆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내 유미와 딸 태린에게 감사하다. 아내의 배려가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학업부터 논문과 졸업까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빠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질적 후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기도와 응원을 아낌 없이 후원 베풀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감사드리며, 처제들과 동생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바쁜 상황 속에도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신 박해정 교수님과 끊임 없는 응원과 모든 과정을 도와 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과정을 소개해 준 친구 김다니엘 목사, 좋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인터뷰와 예배 참여에 동참해 준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논문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첫 목회지 홍도교회와 신앙공동체로 인해 논문의 주제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예배의 4 중 구조와 성찬을 회복 할 홍도교회의 예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집례하게 될 모든 예배를 기대하며, 성찬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목회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한다.

〈부록 I〉

연구 참여 동의서

귀하는 김용호 목사의 "코로나 감염병 시기 MZ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119]라는 제목하의 연구 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의 박해정 교수, 김남중 교수의 지도 아래 김용호 목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지도 교수의 이메일은 주심 박해정 박사 (foryelim1@gmail.com), 부심 김남중 박사 (njkim@cst.edu)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 한국 감리교 목회를 이끌고 나갈 MZ 세대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며 그들이 급변한 예배 환경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MZ 세대 목회자들의 온라인 예배 경험 이해에 대해 성찰과 디지털 대면 예배의 패러다임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디지털 대면 예배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MZ 세대 목회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동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MZ 세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집례하며 무엇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이 경험한 온라인 예배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질적 연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에 속한 MZ세대 중 다양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를 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119 연구참여동의서에 적힌 제목은 프로젝트 제목이 최종 확정되기 전의 제목이다.

진행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온라인 예배에 경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MZ세대 목회자는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MZ세대로 온라인 예배에 어떤 영향을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지, 그 현상과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홍도길7 홍도교회, ***-****-****, yongho.kim@cst.edu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기를 동의하신다면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며, 1대1 심층 면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2-3회 연장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리상 심층면담을 할 수 없거나, 온라인 예배의 집례 방법 중 하나인 Zoom과 페이스타임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인터뷰는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필사된 내용과 분석한 내용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삼각검증법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본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또한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집례를 경험한 귀하의 인터뷰 참여는 논문 연구에 실제적 분석, 혹은 평가가 되는 소중한 자료들이 될 것이고, 연구의 신뢰도와 질을 향상하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온라인 예배

집례에서 MZ세대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패러다임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온라인 예배 집례를 하는 MZ세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1시간 정도의 1대1 인터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Zoom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며, 질문의 내용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인터뷰를 잠시 쉬거나, 질문에 대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보관될 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 외에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 그리고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과 필사본은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될 것이며, 암호화를 통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논문 연구가 끝나면 귀하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를 철회할 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귀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김용호 목사의 ***-****-**** 혹은 yongho.kim@cst.edu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2-02) 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 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tar@hanmail.net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의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

주소: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Ⅱ〉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 초대장

2023.03.21.화

디지털 대면 성찬 예배

예배 4중 구조에 따른 성찬예배

1.하나님앞에 나아옴 2.하나님 말씀의 선포 3.감사와 응답 4.세상으로 나아 감
1.한 처음에(부르심과갱신) 2.숨(말씀/설교) 3.쉼(성찬) 4.새로운 시작(출발)

초청의 말씀 / 성찬기도 /
성찬제정사 / 성령임재의 기도 /
분병 / 나눔 / 성찬 후 감사기도 /
새로운 시작과 출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6-17)



〈부록Ⅲ〉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초대장

2023.03.20.월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예배 4중 구조에 따른 성찬예배

1.하나님앞에 나아옴 2.하나님 말씀의 선포 3.감사와 응답 4.세상으로 나아 감
1.한 처음에(부르심과갱신) 2.숨(말씀/설교) 3.쉼(소금언약) 4.새로운시작(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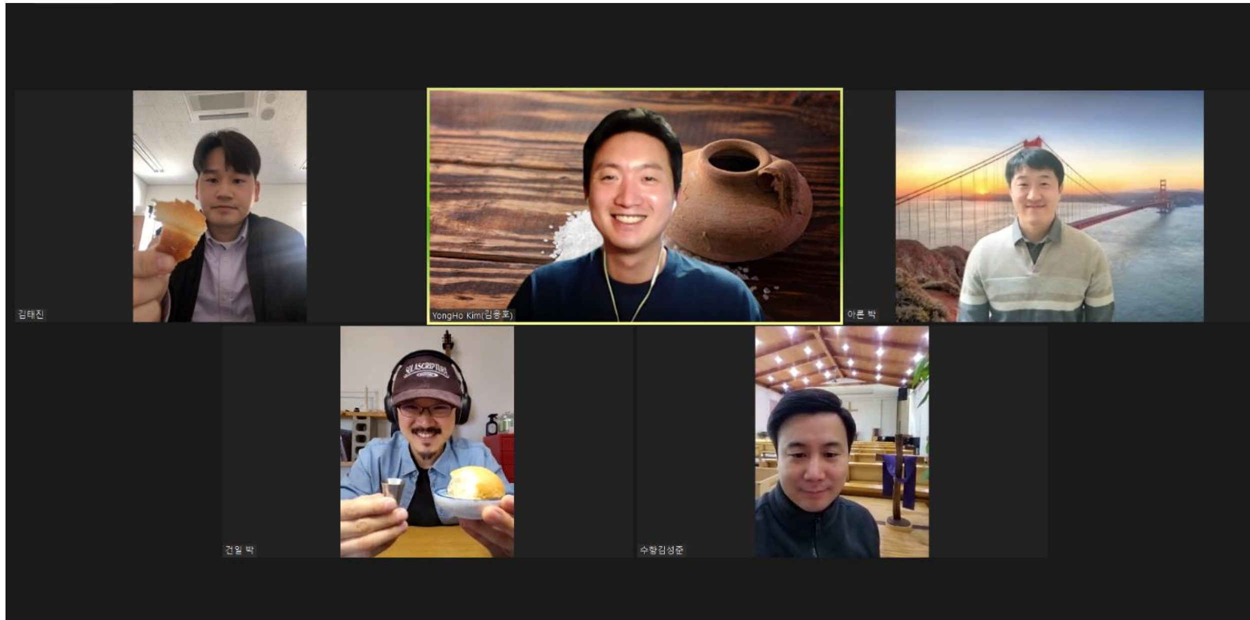
초청의 말씀 / 소금 언약을 위한 기도 /
소금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증거 /
성령임재의 기도 / 소금언약 / 나눔 /
소금 언약 후 감사기도 /
새로운 시작과 출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5:13)

〈부록Ⅳ〉

디지털 대면 예배 참여자들의 사진



〈디지털 대면 성찬예배 참여자〉



〈디지털 대면 소금언약 예배 참여자〉

참고문헌

(Bibliography)

국내도서

고광열. *MZ 세대 트렌드 코드.* 서울: 밀리언서재, 2021.

김병삼, 이종현, 박혜신, 김종윤, 정모세, 배윤주, 김병윤, 엄태호, and 한태수. *올라인교회*, 서울: 두란노서원, 2021.

김순환. *예배학총론 예배와 삶의 통섭을 추구하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연구방법론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나형석. *예배학교실.* 서울: 좋은땅, 2012.

박해정. *빛을 따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서울: 동연, 2021.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신경하.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예배서.* 서울: 도서출판 kmc, 2011.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서울: 두란노서원, 2018.

안선희. *예배 이론 예배 실천*. 서울: 바이북스, 2013.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2019.

윤형철. *윤형철교수의 조직신학꿀팁.* 서울: 홍성사, 2021.

이상규, 노영상, and 이상구, eds. *교회통찰, 코로나 언택트 뉴노멀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전정환. *밀레니얼의 반격.* 서울: 도서출판 길벗, 2019.

정창균, 이승진, and 권호.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목회.* 수원: 설교자하우스, 2020.

최승목, 김남중, and 오강남.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 부천: 워십리더, 2021.

한승진. *코로나와 기독교.* 서울: 부크크, 2020.

<u>번역서</u>

Kim-Cragg, HyeRan.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Translated by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Küng, Hans. Die Kirche *교회*. Translated by 정지련. 서울: 한들출판사, 2007.

Nagel, William. *Geschichte des christlichen Gottesdienstes*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Translated by 박근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u>학위논문</u>

Lee, Youngjin. "Healing and Transforming Ministry Conflicts Among Korean Methodist Seminarians: Grounded Theory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Approaches."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1.

오석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Z 세대를 위한 성찬 이해 및 실천적 예배모델 연구." Ph.D diss.,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u>학술지 및 발표논문</u>

김대혁. "포스트코로나(Post-Covid 19) 시대 속 온라인 영상 설교의 한계점 인식과 설교학적 함의." *신학지남* vol. 88, no 1 (March 2021): 151-79.

박미경.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 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vol. 22, no. 1 (March 2022): 33-54.

박해정.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신학과세계* vol. 98 (June2020): 175-216.

______. “성례전적 예배공동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 *신학과세계* vol. 100 (June 2021): 231-66.

손의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 노인사역 전략과 실천 방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124 (April 2022): 403-33.

송훈호. “성찬 성례전적 공동체 식사를 통한 연합 방안.”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no. 5 (May 2022): 47-73.

양성진. “요즘애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 MZ 세대를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vol. 103 (December 2022): 497-537.

오해섭 and 문호영. “Z 세대 10 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인구.” I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8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이세형. “웨슬리의 성만찬 신학.” *한국개혁신학* vol.32 (November 2011): 76-101.

이승우. “설교에서의 청중참여를 위한 실천적 제언.” *신학논단* vol. 97 (September 2019): 155-85.

이정재. “코로나 19 이후 : 교리적 예배와 1-2 세기 예수 공동체의 예배.” *신학사상* no.191 (January 2020): 147-76.

조기연. “성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초대교회와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no. 76 (September 2021): 7-39.

조성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 목회 전략.”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no.9 (September 2021): 27-45.

지용근.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In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대토론회*, edited by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16-237.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사, 2020.

최규명. “청소년 및 MZ 세대 이해와 기독교교양 수업.” *신학과 복음* vol. 12. (May 2022): 135-62.

전자 책 및 웹사이트

감리회소개. “교역자와 교인.” *기독교대한감리회.* February 15, 2023. https://kmc.or.kr/about-kmc/pastor-layman.

권현석. “기감, 선거법 개정 후 첫 감독 선거…2030 목회자 목소리 커지나.” *데일리굿뉴스.* January 18, 202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80.

김철영. “교단들, 임대교회 월세 두달 간 지원.” *크리스찬투데이.* March 18, 2020. http://www.christiantoday.us/26396.

김형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 세미나 봇물.” *웨슬리타임즈.* February 07, 2023.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 19 이후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넘버즈.* October 21, 2022.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6.

박재찬. “팬데믹 2 년, 개척교회 사역 중인가요?...3 곳중 2 곳은 답이 없었다.” *국민일보.* May 04, 20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45037&code=61221111&sid1=i.

손동준. “말뿐인 젊은감리회… 현실은 ‘不通’.” *기독교타임즈.* January 18, 2017. https://www.kmc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1.

신세계역성경. “만찬에서의 윗자리.” *워치 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March 22, 2023. https://wol.jw.org/ko/wol/d/r8/lp-ko/1001072123.

심자득. “송구영신 온라인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당뉴스.* February 15, 2023.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0.

최승현. “[코로나 19,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2 노인들] 온라인 예배할 줄 알면 다행, 교제는 언감생심.” *뉴스앤조이.* April 21, 2022.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거리두기 4 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July 21, 2021.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6528.

____.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 년 1 개월만에 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pril 15, 2022.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9317.

함돈균. "[사물의철학] 원탁-평등한 식탁." *매일경제*. February 07, 2023.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5834709.

홍선경. "나이 많은 부목사는 사절합니다." *뉴스앤조이*. October 21, 2022.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03.